

# 레 지 오 마 리 애 공 인 교 본

(윤독, 검토용)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THE  
OFFICIAL HANDBOOK  
OF THE  
LEGION OF MARY

PUBLISHED BY  
CONCILIUM LEGIONIS MARIAE

DE MONTFORT HOUSE  
MORNING STAR AVENUE  
BRUNSWICK STREET  
DUBLIN 7, IRELAND

Revised Edition, 2014

Nihil Obstat:

Bede McGregor, O.P., M.A., D.D.

Censor Theologicis Deputatus

Imprimi potest:

✠ Diarmuid Martin

Archiep. Dublinen.

Hiberniae Primas.

Dublin, 11<sup>th</sup> February 2014

© Copyright 2014

Printed in the Republic of Ireland by

Mahons, 54 Bolton Street, Dublin 1

차 례

## 사전 주석

레지오는 그 조직과 규율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균형이 깨져 무너질 수 있는 체계이다.

다음 시구는 바로 이에 대한 비유라 할 수 있다.

한 오라기 실 뽑으니  
온 필베에 흠이 가고,  
형클어진 화음 하나  
온 선율을 거스르네.

윗티어 Whittier

그러므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운영할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아예 레지오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제20장 [레지오의 조직은 바꿀 수 없다]를 주의 깊게 읽어 주기 바란다. 누구라도 (공인된 레지오의 평의회를 통하여) 레지오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단원이 될 수 없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규정대로 충실히 운영되는 레지오의 기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 프랭크 더프

### 레지오 마리에 창설자

프랭크 더프(Frank Duff)는 1889년 6월 7일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태어났다. 그는 18세에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눈부신 경력을 쌓았다. 초창기에는 스포츠 활동에 자유 시간을 사용하다가, 24세가 되던 해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에 가입하면서부터 그곳에서 가톨릭 신앙을 실천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가난한 이들과 소외 계층의 필요에 대한 깊은 감수성도 키워나갔다.

일단의 가톨릭 자매들과 더블린 대교구 사제인 마이클 토허 신부(Fr. Michael Toher)와 함께, 그는 1921년 9월 7일, 장차 레지오 마리에 최초의 브레시디움이 될 첫 번째 지회(branch)를 설립하였다. 그날부터 1980년 11월 7일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는 전세계에 레지오를 확장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헌신하였다. 그는 평신도 참관인 자격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프랭크 더프는 1980년 11월 7일,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996년 6월에는 당시 더블린 대교구의 교구장 데스몬드 코넬(Desmond Connell) 추기경에 의하여 그의 시복 안건이 제기되었다.

그는 구원 계획에서 성령과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서 맡고 계신 역할과 교회의 사명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역할에 대하여 깊이 통찰하고 있었고, 이러한 그의 통찰력은 거의 대부분 그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이 교본에 반영되어 있다.

### 프랭크 더프 시복 청원 기도문

저희들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종 프랭크 더프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당신 교회의 신비와

이 신비 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일을

깊이 바라보는 힘을 불어넣어 주셨나이다.

더프 형제는 이 통찰력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려는

무한한 열망과,

성모님께 대한 극진한 신심을 바탕으로  
레지오 마리아를 창설(설립?)하여,

성모 마리아가 세상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표지가 되고,  
모든 자녀들이 성교회의 복음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길을 마련하였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더프 형제에게 베푸신 은총과  
그의 용감하고 빛나는 믿음으로  
성교회가 받고 있는 무수한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굳센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더프 형제의 전구를 통하여  
저희들이 드리는 청원 (.....)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아울러 당신의 뜻과 일치한다면,  
더프 형제의 생애가 거룩하였음을  
성교회가 인정하여 아버지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레지오 마리아

“먼동이 트이듯 나타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저 여인은 누구실까?”(아가 6,10)

\* 참조: “새벽빛처럼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다우며 해처럼 빛나고 기를 든 군대처럼 두려움을 자아내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아가 6,10) - 2005년 성경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루카 1,27)

“레지오 마리아! 이 얼마나 완전하게 선택된 이름인가?”(교황 비오 11세)

## 제1장 명칭과 기원

레지오 마리아는 가톨릭 신자들의 단체이다. 그들은 교회의 인가를 받고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끊임없이 맞서는 교회의 싸움에 참가하기 위하여 군대로 결합되었다.

이 군대를 총지휘하시는 성모님은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시며’ 사탄과 그 무리들에게는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분’이시다.

“인간의 모든 삶은 개인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참으로 선과 악, 빛과 어둠의 극적인 투쟁으로 드러난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13항)

레지오 단원들은 충성과 덕행과 용기로써 위대한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님께 합당한 자가 되고 싶어 한다. 바로 이 점이 레지오 마리아가 군대 형태로 조직된 이유이다. 이 군대의 형태는 본디 로마 군단을 본뜬 것이며, 명칭도 거기서 따 왔다. 그렇지만 레지오 마리아의 조직과 무기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 군대는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군대이지만 그 시작은 아주 소박하였다. 이 군대는 치밀한 계획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났다. 규율과 활동에 관하여 미리 생각하지도 않았다. 제안 하나를 단지 던졌을 뿐이다. 만나기로 정한 어느 날 저녁, 몇 안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지극한 사랑의 섭리께서 쓰실 도구가 되리라고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회합의 모습은 오늘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레지오 회합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들이 둘러앉은 탁자 위에는 간단하게 제대가 차려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기적의 패’ 모형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상’이 놓여 있었다. 성모상은 흰 보 위에 모셔져 있었고, 꽃을 꽂은 두 개의 꽃병과 촛불이 켜진 두 개의 촛대가 양쪽에 놓여 있었다. 이처럼 훌륭한 분위기가 감도는 제대는 그 모임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의 영감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로써 레지오 마리아가 표상하는 모든 것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었다. 레지오는 군대이다. 그런데 모후께서는 병사들이 모여 오기도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셨다. 모후께서는 누가 이 군대에 등록하러 올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으므로, 이들의 등록을 직접 받고자 기다리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모후이신 성모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은 성모님과 결합되어 있는 한, 성공을 거두고 목적을 이룰 것임을 알고, 성모님과 함께 행진하며 싸워왔다.

이들이 맨 처음 취한 단체 행동은 무릎을 꿇는 일이었다. 신앙심 깊은 이 젊은이들은 머리를 숙여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를 바친 다음, 낮 동안 고달프게 일한

손에 묵주를 들고 가장 소박한 기도인 묵주 기도를 바쳤다. 마지막 기도가 끝났을 때 그들은 자리에 앉아서 마리아상으로 나타나 계신 성모님의 주관 아래,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서 사랑받으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숙고하였다. 바로 이 논의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모습의 레지오 마리아가 탄생하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평범한 젊은이들이 그저 단순하게 시작한 일임을 미루어 볼 때, 것처럼 놀라운 하느님의 뜻이 바로 가까이에서 작용하고 있었음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세계적인 새로운 군대가 될 운명을 지닌 조직체, 충실하고 견고하게 관리하기만 한다면 온 누리에 생명과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줄 힘을 성모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조직체를 자신들이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들 중 누가 짐작이라도 했겠는가? 그런데 그것은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처럼 성모님의 병사들의 첫 등록은 1921년 9월 7일 저녁 8시,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전야에 아일랜드 더블린 시 프란시스 거리에 있는 마이러 하우스(Myra House)에서 있었다. 이 모임의 모체가 ‘자비로운 성모(Our Lady of Mercy)’였기에, 한동안 이 조직은 ‘자비로운 성모회(the Association of Our Lady of Mercy)’로 알려져 왔다.

어쩌면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이 날짜가 결정되었는데, 당시에는 이 날짜가 그 다음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과 몇 년 안 가서, 성모님이 보여 주신 진정한 모성의 징표가 수없이 나타나 있는 것을 돌이켜 보고 나서야, 비로소 레지오가 탄생하던 그 순간에 성모님의 지극히 오묘하신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저녁과 아침으로 첫째 날이 이루어졌고(창세 1,5 참조),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탄 축일의 끝 부분보다는 처음 순간(전야)이 이 조직의 탄생에 더욱 잘 어울렸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처음부터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성모님의 모습을 조직 안에 재현시키는 것이며, 이로써 주님을 더욱 확대하여 사람들에게 가까이 모셔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모님은 구세주의 모든 지체들의 어머니이시다.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도록 사랑으로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모님은 또한 하느님의 산 거푸집이시다.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모님 안에서만 신성을 잃지 않으신 채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로 성모님 안에 머물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인간 본성을 뛰어넘어 하느님의 모습에까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성 아우구스티노 St. Augustine)

“교회의 참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참모습을 알려주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대단히 적절한 일이다.”(교황 요한 23세)

## 제2장 레지오의 목적

레지오 마리아의 목적은 단원들의 성화(聖化)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단원들은, 교회의 지도 아래, 뱀의 머리를 바수고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는 성모님과 교회의 사업에 기도와 활동으로 협력함으로써 성화된다.

레지오 마리아는, 콘칠리움의 승인과 그 공인 교본이 명시하는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구의 주교와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가 레지오 단원에게 알맞고 교회 복지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봉사와 가톨릭 활동을 그들의 뜻에 따라 전개한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들은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나 직권자(Ordinary)의 승인 없이는 그와 같은 봉사 활동이 어떤 것이든 그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직권자란 교구 직권자, 다시 말하면 해당 교구의 주교 또는 그 밖의 교회 관할권자를 가리킨다.

“가) 이러한 조직의 직접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며, 그들의 양심을 그리스도교적으로 형성하고, 다양한 공동체와 환경에 복음의 정신을 불어넣는 교회의 사도직 목적이다.

나) 교계와 그 나뉠대로 협력하는 평신도들은 자기 경험을 살려 책임지고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며, 교회의 사목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조건을 연구하고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다) 평신도들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결합되어 행동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더 적절하게 드러내고 사도직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라) 교계 사도직과 직접 협력하여 활동하도록 권유를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헌신한 평신도들은 그 교계의 상급 지도 아래 행동한다. 주교는 이러한 협력 단체를 명시적 위임으로 승인할 수 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20항)

### 제3장 레지오의 정신

레지오 마리아의 정신은 성모 마리아의 정신이다. 레지오는 특히 성모님의 깊은 겸손, 온전한 순명, 천사 같은 부드러움, 끊임없는 기도, 갖가지 고행, 티 없는 순결, 영웅적인 인내심, 천상적 지혜, 용기와 자기희생으로 바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갖추고자 열망하며, 무엇보다도 성모님의 믿음을 따르고자 갈망한다. 믿음의 덕목의 극치는 성모님에게서만 발견되고 그에 필적하는 다른 믿음은 없기 때문이다. 성모님의 이와 같은 사랑과 믿음에 감화된 레지오는 어떤 일이든지 모두 해보려고 하고, “할 수 없다는 핑계를 안 하니 못할 것이 없고, 가하지 않은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준주성범』 제3권 제5장)

“이 같은 사도적 영성 생활의 완전한 모범은 사도의 모후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이다. 성모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 가정을 돌보시고 일에 파묻혀 지내시면서도 언제나 당신의 아드님과 밀접히 결합하셨으며 구세주의 활동을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도와주셨다. …… 모든 이는 성모님을 열심히 공경하며 자기 생활과 사도직을 성모님의 보호에 맡겨 드려야 한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4항)

## 제4장 레지오의 봉사

### 1.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여야 한다(에페 6,11)

레지오 마리아가 그 이름을 따 온 로마 군단은 충성, 용맹, 규율, 인내 그리고 승리로 여러 세기 동안 명성을 떨쳤으나 이는 흔히 천박하고 세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였다(부록 4 [로마 군단] 참조). 분명한 것은, 성모님의 군단인 레지오 마리아는 마치 보석이 떨어져 나간 장신구처럼 로마 군단보다 못한 자질들을 갖춘 군단이라는 이름을 성모님께 바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로마 군단이 지녔던 훌륭한 자질은 레지오 단원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을 나타낼 뿐이다. 베드로 성인의 권유로 개종한 후에 바오로 성인과 함께 일했던 클레멘스 성인은 로마 군단을 교회가 본받아야 할 표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인가?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의 무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싸움터에 과감히 뛰어들어 주님께서 내리시는 영광스러운 명령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자. 우리는 로마 군단의 지휘관 밑에 복무하는 장병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엄격한 규율과 복무 자세, 그리고 명령을 수행하는 복종심 등을 눈여겨보자. 그들 모두가 지방 장관이나 호민관, 백부장이나 오십부장 또는 하급 지휘관은 아니다. 그러나 장병 하나하나가 자기가 속한 계급에서 황제와 상관의 내리는 명령을 수행한다. 큰 것은 작은 것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작은 것은 큰 것 없이 존재할 수 없다.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는 모든 부분을 한데 뭉치게 하여 각 부분이 서로 돕고 또 전체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우리의 몸을 살펴보자. 머리는 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이와 마찬가지로 발도 머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몸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해도 몸 전체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관이다. 사실상 모든 부분은 서로 의지하면서 움직이고 몸 전체가 유익하도록 다 함께 순응한다.”(성 클레멘스 교황 순교자 St. Clement :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서간』 36장과 37장[A.D. 96년])

### 2.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로마 12,1-2).

신실한 레지오 단원이 가진 뜻이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그의 내면에서는 더 위대한 덕성이 흘러나오며, 특히 예수의 성녀 데레사(St. Teresa of Avila)가 지녔던 감정을 반영하는 숭고한 너그러움이 흘러나온다. 데레사 성녀는 “그토록 많이 받고도 것처럼 적게 갚아 드리다니. 아!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순교로구나.”라고 말하였다. 레지오 단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마지막 숨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봉사를 통해 그와 같은 완전한 자기증여를 반영하도록 힘써야 한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라 말이나? 내가 해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나?”(이사 5.4)

### 3. 수고와 고생을 피해서는 안 된다(2코린 11.27)

열심한 가톨릭 신자는 죽음이나 고문을 당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늘 있다. 수많은 레지오 단원들이 이러한 영광의 문을 당당하게 통과해 왔다. 그러나 대개 레지오 단원으로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평범하면서도 드러나지 않게 참된 영웅적인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알맞은 기회를 갖게 된다. 레지오 사도직을 수행하다보면, 신앙의 감화를 받지 않으려고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나 악의가 아닌 선의의 방문을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모두 주님의 품안에 거두어들이 수는 있겠지만, 인내와 용기의 정신으로 훈련하지 않고서 이 사도직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하다.

찌푸린 얼굴, 가시처럼 쏘는 모욕과 무시, 비웃음과 적대적인 비판, 심신의 피로, 실패와 비열한 배신으로 입는 마음의 상처, 매서운 추위와 폭우, 더러움과 벌레들과 악취, 어두운 골목이나 불결한 주위 환경, 여가를 희생하는 일, 활동에서 겪는 술한 괴로움,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들과 그들의 타락 행위를 떠올릴 때마다 예민한 영혼이 받는 고통,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온갖 슬픔 등,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매력이라고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달게 참아 내고 즐거움으로 여기며 끝까지 버티어 나간다면, 벼를 위해 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바로 그 사랑의 경지에 마침내 접근하게 될 것이다.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시편 116.12)

#### 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놓으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에페 5,2)

대인 관계에서 성공을 거두는 비결은 사랑과 이해심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적 접촉에 있다. 이러한 사랑은 단지 겉으로 드러내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며, 온갖 시련을 극복하는 참된 우정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 정도가 되려면 다소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때도 흔히 있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 교도소 방문 활동의 대상자였던 사람을 점잖은 자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어야 한다던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걸어야 한다던가, 때가 묻은 손을 다정하게 잡아 주어야 한다던가, 매우 가난하고 누추한 집에서 대접하는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하는 일은 사람에게 따라서는 괴로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정 어린 태도가 가식이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그들과의 접촉은 끊기고, 애써 끌어 올리려던 영혼은 다시 환멸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 것이다.

참으로 풍부한 열매를 맺는 모든 활동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자기를 모두 바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는 봉사 활동은 알맹이가 없다. 레지오 단원이 어느 한계선을 정해 놓고 ‘여기까지만 희생을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는 비록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찮은 결과밖에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자기를 바치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수고가 전혀 필요 없게 되거나, 또는 조금만 수고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일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요한 13,38)

#### 5. 달릴 길을 다 달려야 한다(2티모 4,7)

이처럼 레지오는 한계를 두지 않고 아낌없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봉사 활동을 완전하게 하라는 충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완전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고의 목표를 겨냥하지 않는 단원은 오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평생 사도직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웅적 행위이며, 그러한 경지는 끊임없는 영웅적 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평생을 변함없이 사도직 활동에 몸 바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나 단원 각 개인에게만 그러한 지속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레지오의 전반적 임무와 업무 하나하나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물론 필요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장소와 사람들을 새롭게 찾아다니며, 한 가지 활동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활동이 전개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안정된 변화일 따름이며, 결코 흥미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가 아니다. 만일 단원이 호기심이나 취미로 새로운 활동 거리를 찾아나선다면, 그러한 기분에 따른 행위는 아무리 훌륭한 레지오 규율이라도 끝내는 깨뜨려 버린다. 이렇게 변화만을 좇는 정신을 염려하여 레지오는 좀 더 엄격한 기풍을 지니도록 끊임없이 호소한다. 그리하여 레지오는 연속되는 회합을 통하여 단원들에게 이 정신을 ‘굳게 지키라.’는 불변의 구호를 강조하면서 활동 임무를 배당하여 파견한다.

즐거찬 노력만이 참된 성공을 보장하며, 즐거찬 노력은 이기고 말겠다는 굳센 의지로부터 시작된다. 이기고 말겠다는 굳센 의지는 어떤 경우에도 굽히지 않아야 끝까지 지탱될 수 있다. 그러므로 레지오는 산하 조직체와 단원들에게 패배를 받아들이지 말고, 활동 내용에 대하여 ‘가망 있다·가망 없다·절망적이다.’ 등의 등급 매김으로 실패를 합리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관된 태도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한다. ‘희망이 없다’는 낙인을 쉽사리 찍는 것은, 레지오의 입장에서 보면, 더없이 귀중한 영혼이 아무 거리낌 없이 지옥으로 치달아도 알 바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희망이 없다’는 낙인을 쉽사리 찍는 것은, 더 고귀한 목적들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행하고 일이 진척되는 표지를 보려는 경솔한 바람이 활동 이유를 대신하려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 결과, 씨를 뿌리자마자 수확을 보지 못하면 실망하고 조만간 그 일을 포기하게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어떤 활동에 대하여 ‘가망이 없다.’는 낙인을 찍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모든 활동에 임하는 단원들의 태도를 약화시킨다. 그렇게 되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활동에 착수할 때마다 애써 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게 되면 활동은 위축된다.

그런데 레지오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불행한 일은, 단원들의 신앙심이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배당 받은 활동이 이성적으로 용납될 때에만 하는 척하게 된다는 것이다. 레지오의 믿음이 이처럼 속박 받아 결단력을 잃게 되면, 억눌려 있던 본성적인 비겁함이나 인색함 그리고 세속적인 소심증이 당장에 고개를 쳐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레지오의 활동은 간간이 마음이 내킬 때에만 하게 되므로, 하느님께 드리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어설픈 봉사가 되고 만다.

그렇게 때문에 레지오는 활동 계획에 관한 것보다는 오히려 활동의 목적에 쏟는 열의에 더 관심을 갖는다. 레지오가 단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재력이나 개인적인 영향

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눈에 띄는 행동이 아니라 느슨해지지 않으려는 노력, 재능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사랑, 거대한 힘이 아니라 한결같은 규율이 다. 레지오 단원의 봉사는 지속적이어야 하며, 위기를 맞더라도 바위와 같이 튼튼하고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한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일단 성공하면 겸손해야 하며, 성공 여부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싸워야 하나 실패하더라도 낙담하지 않으며, 계속 싸움을 벌여 마침내 실패를 이겨내야 한다. 또한 온갖 어려움과 단조로움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온갖 어려움과 단조로움은 믿음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공격을 할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소집될 때를 대비하여 항상 준비하고, 소집되지 않더라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싸움이 없어 적이 눈앞에 띄지 않더라도 늘 하느님을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빈틈없는 파수꾼 노릇을 해야 한다. 불가능한 것이라도 해내겠다는 마음을 지니고 보잘것없는 임무에도 만족해야 한다.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없고 너무 작아서 하찮게 보이는 임무도 없으므로, 매사에 똑같이 세심한 관심과 똑같이 지치지 않는 인내심과 똑같이 곳곳한 용기를 불어넣어야 하고, 모든 임무를 똑같이 최고의 끈기로 수행해야 한다. 늘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일하면서, 나약한 이들 가까이에서 그들이 어려운 순간을 보낼 때마다 지탱해주고, 완고한 이들을 깨어 지켜보다가 그들의 마음이 온화해지는 흔치 않은 기회를 틈타 접근하여야 한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자신의 일에는 신경 쓰지 말고, 늘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 곁에 서서 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지켜 서 있어야 한다.

성실하신 동정녀께 봉헌되어 명예로울 때나 곤욕을 당할 때라도 그분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우리 레지오의 봉사는 한결같아야 한다.

## 제5장 레지오 신심의 개요

레지오 신심의 개요는 기도문에 나타나 있다. 레지오는 우선 하느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인 우리에게 쏟으시는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쏟는 노력에서 영광을 이끌어 내고자 하시며, 우리의 노력을 정확시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꾸준히 지속하도록 해주신다. 우리는 무관심과 지나친 불안이라는 양극단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활동과는 동떨어져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기 때문이며, 하느님께서 늘 도와 주셔야만 우리의 그 선한 목적이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공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하느님께 달려 있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변화를 열망하신다. 우리는 성인이 되기를 추구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자신보다 백만 배나 더 우리가 성인이 되기를 갈망하신다.

자기 성화와 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이중 활동을 수행할 때 선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동반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레지오 단원들을 지탱해주는 핵심적인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성공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결핍뿐이다. 우리에게 오로지 충분한 믿음만 있다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위해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1요한 5,4)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로마 11,33)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되이 인정하면서, 살아 계신 하느님의 말씀의 진리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영원한 뜻에 따라 하느님의 ‘알아내기 어려운 길’과 ‘헤아리기 어려운 판단’의 한복판에서 계시다고 할 수 있는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을 준비된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면서, 희미한 믿음의 빛 안에서 하느님의 알아내기 어려운 길과 헤아리기 어려운 판단에 자신을 내어 맡기시는 것입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14항)

## 1.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

레지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형언할 수 없는 기적’(교황 비오 9세)이신 성모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를 무(無)에서 창조하셨으며, 이루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은총의 경지까지 들어 올리셨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하느님께 비한다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욱 공을 들여 만드셨기에 마리아는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는 일이 크면 클수록,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작품으로서 더욱더 위대해진다.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참으로 큰일을 하셨다. 태초로부터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이미 마리아를 구상하고 계셨다.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는 여러 계획 속에 마리아를 깊숙이 관련시키심으로써 마리아를 당신의 아드님과 그 아드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참된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 이유는 첫째로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서보다도 마리아 한 분에게서 더욱 큰 보람을 느끼시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로서는 제대로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서 받으실 영광을 더욱 드높이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머니이시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마리아에 대한 보답으로 마리아에게 기도와 사랑의 봉사를 바치는 것은 결코 하느님께 손실을 끼쳐 드리는 일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들이 마리아에게 드리는 것은 조금도 줄지 않고 틀림없이 모두 하느님께 바쳐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많이 불어나서 하느님께 바쳐진다. 그러므로 성모 마리아는 충실한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하는 분이시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 계획 안에서 활력소가 되도록 정해진 분이기에, 마리아가 있음으로써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우리가 받는 은총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바치는 흠숭을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즐겨 하신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자비와 전능으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은총이 마리아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 전달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참 생명이시오 유일한 구원이시며 사람이 되신, 천주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에 보내실 때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성모님께 매이기를 바라는 것은 천주 성자의 노예가 되기 위함이고, 내가 성모님의 소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하느님께 대한 나의 충성을 더욱 확실하게 바치기 위한 것이다.”(성 일데폰소 St. Ildephonsus)

## 2.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신 성모 마리아

레지오는 성모님을 한없이 신뢰한다. 성모님이 하느님의 안배하심으로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성모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주셨으며, 성모님 또한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은총을 풍성히 받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성모님을 당신의 은총을 전달하는 특별한 수단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모님과 더불어 나아간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하느님께 다가가 훨씬 손쉽게 풍성한 은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참으로 성모님은 성령의 거룩한 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어 주신 모든 은총을 전달해주는 수로(水路)이시며, 우리는 은총이 가득 흘러나오는 이 수로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 성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시면 아무런 은총도 얻을 수 없다. 더욱이 성모님이 모든 은총을 단순히 전해 주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은총을 더욱 힘써 얻어내신다. 레지오는 이와 같은 성모님의 역할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단원들에게 이를 특별한 신심으로 실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마리아를 공경하기를 바라셨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하느님께서서는 온갖 충만한 선(善)을 마리아에게 마련해주심으로써, 만일 우리가 희망이나 은총이나 구원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가진다면, 그 모든 희망과 은총과 구원이 마리아에게서 흘러나와 우리에게 이르도록 하셨다.”(성 베르나르도 St. Bernard: 수로(水路)에 대한 설교)

## 3. 원죄 없으신 마리아

레지오 신심의 두 번째 특징은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 관련된 것이다. 레지오의 첫 번째 회합에서 단원들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상’을 모신 작은 제대에 둘러앉아 기도하고 의논하였는데, 지금도 모든 레지오 회합에는 그 당시와 똑같은 성모상이 회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레지오의 첫 숨결은 성모님의 이러한 특

전(원죄 없으신 잉태)을 기리며 바쳐진 단원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 특전은 그 후 하느님께서 성모님에게 내리신 모든 영예와 특전의 바탕이 되었다. 이 ‘원죄 없으신 잉태’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모님을 맨 처음 약속하신 말씀에 이미 나타나 있다. 성모님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전은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특전과 더불어 이 특전을 뒤따를 거룩한 일들이 예언된다. 즉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고, 구원 사업에서 뱀의 머리에 상처를 내며, 인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창세 3,15)

레지오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이 말씀을 죄악과의 싸움에서 확고한 신념과 힘의 원천으로 삼는다. 레지오는 그 ‘여자의 후손’, 즉 성모 마리아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지오가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는 정성이 크면 클수록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적개심이 강해지고 더욱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존귀한 성전(聖傳)은 구원 계획 안에서 말으신 구세주 어머니의 임무를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 주며 마치 눈앞에 보여 주듯이 제시하고 있다. 참으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느낀 걸음으로 준비하는 구원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읽혀지고 충만한 마지막 계시에 비추어 이해되는 그 초기 문서들은 구세주의 어머니인 여인의 모습을 한 걸음씩 더욱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죄에 떨어진 첫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 뱀을 이기리라는 승리에 대한 약속(창세 3,15 참조) 안에 그 여인의 모습이 이미 예언적으로 어렴풋이 그려지고 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55항)

#### 4.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만일 우리가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바란다면, 그 근본이 되는 모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성모님께 대한 레지오 신심의 세 번째 특징은 성모님을 우리의 참된 어머니로서 특별히 공경하는 데 있다. 성모님은 참으로 우리의 어머니이시다.

동정 마리아께서 천사의 인사를 받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

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하시며 겸손하게 동의하신 순간,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셨고 또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다.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니로 선포된 것은 그 모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즉 구속 사업이 완성되던 순간이었다.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제자 요한에게는 “이분에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6-27)라고 말씀하셨다. 요한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택된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다. 성모님은 이와 같이 인류가 영적으로 탄생하는 일에 당신의 동의와 비탄으로 온전히 협조하심으로써 가장 충만하고 가장 완벽한 의미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다.

우리가 참으로 성모님의 자녀라면 이에 맞갖은 행동을 해야 하며, 어린이들처럼 어머니께 온전히 의탁해야 한다. 우리는 성모님이 우리를 먹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병을 고쳐 주시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위로하여 주시고, 의심이 들 때 깨우쳐 주시고, 방황할 때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야 한다. 것처럼 성모님이 우리를 돌보시도록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만형이신 예수님을 닮으며 자라나서, 죄악과 싸워 이기시는 예수님의 사명에 한몫 거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이유나 또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육화의 신비로 성모님으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을 때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셨던 하느님의 새로운 계획’에 가장 내밀한 협력자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선택된 이들의 공동체 안에 모든 덕의 모범으로서 빛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무릇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임무는 새 생명을 낳는 일에만 그치지 않는다. 어머니는 그 자식을 기르고 가르치는 일까지 맡지 않으면 안 된다.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성모님은 인류 구원 사업을 위한 아드님의 희생 제사에 그토록 밀접하게 참여하시어 당신 아드님으로부터 사도 요한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 사도 요한이 대표하는 전 인류의 어머니로 선포되신 뒤로도, 여전히 구원받은 모든 개별 영혼들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나도록 보살피는 협조자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늘에서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 이러한 진리는 전지하신 하느님께서 자유로이 허용하시어 인류 구원의 신비를 완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우리를 가장 위로해주는 진리이다. 따라서 이 진리는 모든 그리스교 신자들이 신앙으로 고수해야 할 진리이다.”(‘복되신 동정 마리아 공경’에 관한 교황 바오로 6세의 권고 『Signum Magnum』)

## 5. 레지오의 신심은 레지오 사도직의 뿌리

레지오의 가장 소중한 의무 가운데 하나는 하느님의 어머니께 온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신심을 보여 드리는 일이다. 이 의무는 단원들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으므로, 모든 단원은 성모 신심을 진지하게 목상하고 정성껏 실천해야 한다.

이 신심이 레지오가 성모님께 바치는 진정한 선물이 되려면, 레지오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즉 단원들은 주회합 참석이나 활동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이 신심을 단원의 의무로 여겨, 모두가 완전히 일치하여 이 신심을 실천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로서 단원 각자가 마음에 깊이 새겨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신심에 대한 단원들의 일치는 대단히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일이다. 각 단원이 어느 정도씩 이 일치를 제어하여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 레지오 단원은 엄숙한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한다. 만일 단원들이 이 신심을 실천하지 않거나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는 살아 있는 돌’(1베드 2,5)이 되지 못한다면, 레지오 조직의 중추 부분이 손상을 입게 된다. 또한 ‘살아 있는 돌’이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레지오 조직은 그만큼 허물어지기 쉬울 것이고, 레지오의 자녀들을 보호해 줄 피난처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레지오가 고상하고 거룩한 품위를 갖춘 집이 되는 일도, 또한 영웅적인 노력을 위한 발판이 되는 일도 더욱 어렵게 되고 만다.

그러나 각 단원이 레지오 봉사의 일치를 적절히 수행한다면, 레지오는 정신과 목표와 활동에서 놀라운 일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이 일치는 너무도 소중하여 누구도 겨룰 수 없는 힘을 이 일치에 부여해 주셨다. 그러므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 단원 개개인에게 은총의 특별한 통로라 한다면, 하물며 하느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신 성모님과 함께 한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면서(사도 1,14 참조) 성모님의 정신에 참여하고, 또한 은총을 분배하는 일과 관련된 하느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단체에게는 더욱 놀라운 은총을 가져다주지 않겠는가! 그러한 단체는 성령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사도 2,4 참조), 그 안에서는 “많은 이적과 표징”(사도 2,43)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동정녀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성을 쏟으시면서, 교회 안에 영원히 넘치게 될 보화, 곧 그리스도의 최고 선물인 파라클리토 성령이 내려오시도록 기원하셨다.”(‘묵주기도’에 관한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Iucunda Semper Expectatione*』)

## 6. 성모님을 알리자

훤이버 신부(Fr. Faber)는 레지오 마리아에 많은 영감을 준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 드 몽포르의 저서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의 서문을 썼다. 이 서문에서 발췌된 아래와 같은 훤이버 신부의 말은 레지오 마리아가 어떤 가능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의 생각을 보여주는 말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절망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제들에게 추천된다. 훤이버 신부는 마리아는 충분히 알려지지지도 사랑받으시지도 못하여 결국 영혼들에게 슬픈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얇고 미약하고 초라하다. 신심 그 자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 받지 못하시고 이단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며 교회가 존경 받지 못하는 것이고, 성인이 되고자 하는 영혼들은 시들어 죽어 그 수가 줄어들고, 성사들을 올바르게 받지 않거나 영혼들에게 열성적으로 복음 선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마리아를 무대 뒤로 숨겨버렸기 때문이다. 수많은 영혼들이 파멸되는 이유 역시 마리아를 그들로부터 멀리 떼어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되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그림자였고, 그것이 바로 모든 궁핍과 좌절, 죄악과 태만과 쇠퇴의 이유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인들이 계시한 바를 믿어야 한다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복되신 어머니에 대한 전혀 다른 신심을, 더 크고 더 넓고 더 강한 신심을 가지도록 재촉하고 계신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 신심을 시도하게만 하자. 그렇다면 이 신심이 가져다주는 은총과 자신들의 영혼에 일으킨 변화를 보고 놀라서, 이 신심이 인류 구원과 그리스도 왕국의 도래를 위한 방편으로 거의 믿기 어려운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내 확신하게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강인한 동정녀에게 뱀의 머리에 상처를 내는 힘을 주셨고, 동정녀와 하나 되는 사람들에게는 죄악을 이겨내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고한 희망으로 이를 믿어야 합니다.

천주의 성모님! 하느님께서서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저희에게 달려 있고, 모든 것을 받아 간직하고 전달해 주시는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에게서 모든 것을 받으시는 당신과 얼마만큼 일치하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그라트리 Gratry)

## 7. 성모님을 이 세상에 모셔오는 일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통해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면, 지니고 다녀야 할 도 구이신 성모님을 이 세상에 모셔오는 일은 우리의 활동에서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일은 성모님을 사랑하는 평신도 사도직 활동 단체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평신도 단체여서 회원 수에 제한이 없고, 활동 단체여서 어디든지 뚫고 들어갈 수 있으며, 성모님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에 성모님에 대한 사랑에 다른 모든 이의 마음을 끌어들이 맹세를 하고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활동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단체는 더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성모님의 이름을 지니면서 어린아이들처럼 끝없이 성모님께 매달리는 신뢰 위에 일종의 조직으로 세워져, 구성원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성모님께 대한 신뢰심을 심어 조직을 견고하게 한다. 그 결과 조직 구성원들을 충성과 규율의 완전한 조화 속에서 활동하는 일꾼들로 소유하게 된다. 레지오 마리아는 자기 조직이 일종의 기계 장치와 같아서 세상을 얻기 위하여 관할권자가 작동하기만 하면 되고, 성모님께서 영혼들을 돌보는 어머니로서 당신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즉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는 당신의 영원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꺼이 대리 기관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레지오 마리아는 이를 추정이 아닌 뚜렷한 확신으로 믿고 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르 3.35)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은 영광에 들어 올리셨는가! 여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낳아 주신 마리아를 지극히 복되다고 칭송한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성모님과 같은 모성에 참여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관하여 복음은 새로운 유형의 세대, 새로운 친자 관계에 대하여 말한다.”(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St. John Chrysostom)

## 제6장 성모님께 대한 레지오 단원의 의무

1. 레지오 단원은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신심을 드높여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본질적인 것이며, 단원이 지켜야 할 모든 의무 가운데 가장 앞서는 것이다(제5장 [레지오 신심의 개요] 및 부록 5 [우리 마음의 여왕이신 마리아 신심회] 참조)

레지오 마리아는 성모님을 이 세상에 모셔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차지하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모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레지오 단원은 성모님을 이 세상에 모셔오는 일에 아무런 쓸모가 없으므로 레지오 마리아의 목표로부터 멀리 동떨어져 있게 된다. 이러한 단원은 마치 총 없는 군인이나 끊어진 고리 또는 몸에 붙어 있어도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팔과 같다.

어느 군대이든 지휘관의 작전 계획이 일사불란하게 수행되도록 병사들을 지휘관과 일치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이는 레지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군대는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대는 면밀하게 짜인 훈련을 실시하고 엄격한 기강을 유지한다. 그 뿐만 아니라,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모든 군대의 장병들은 지휘관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심으로 지휘관과 혼연 일체가 되어 지휘관의 작전 계획에 따라 기꺼이 몸을 바쳤다. 위대한 군대의 지휘관은 병사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들의 마음속을 차지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이는 지휘관의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속 군대의 일치는 다만 정서적이고 기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영혼과 그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관계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 충실한 레지오 단원의 영혼 안에 성모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현만으로는 실제로 그 단원과 성모님이 일치하는 모습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 교회는 이와 같은 일치의 본질을 ‘천상 은총의 어머니’ 또는 ‘모든 은총의 중재자’라는 호칭으로 집약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호칭들은 성모님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장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어머니와 뱃속 아기 사이의 친밀함조차도 성모님과 우리 영혼의 일치를 충분히 묘사할 수는 없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는 과정에서 성모님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다른 자연 현상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피는 심장을 통하지 않고는 온몸을 돌 수 없다. 눈은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와 세상을 연결시켜 준다. 또한

새는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공기가 떠받쳐 주지 않으면 스스로 날아오르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성모님 없이는 스스로를 하느님께 들어 올릴 수가 없고 하느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

이처럼 우리가 성모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 만들어 낸 산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이기에, 우리가 비록 의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성모님에 대한 종속은 그대로 존속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섭리를 깨닫고 성모님께 의식적으로 다가간다면 성모님과의 일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굳건해질 것이며, 또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보나벤투라 성인(St. Bonaventure)은 성모님을 ‘주님의 거룩한 피를 분배하시는 분’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성모님과 굳건히 일치하게 되면 놀라운 성화(聖化)의 은총을 얻게 되며, 다른 영혼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도직 활동은 황금처럼 값진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려나게 할 몸값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성모님이 이 단순한 황금 덩어리를 하느님에게서 선물로 받으신 ‘주님의 거룩한 피’라는 보석으로 장식해 주신다면 모든 사람들을 풀려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모님께 열렬히 봉헌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 봉헌을 “저의 모후,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직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와 같은 구체적인 기도로 자주 갱신하면서, 성모님이 우리 영혼 안에 항상 활동하고 계신다는 의식이 체계적이고 살아 있는 습관이 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뇽 드 몽포르 성인의 말처럼 우리의 ‘몸이 공기를 마시듯 내 영혼은 성모님을 마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레지오 단원은 미사, 영성체, 성체 조배,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또는 그 외의 다른 모든 신심 행위를 실천할 때, 이를테면 자기 자신과 성모님을 그 안에서 동일시하려고 애쓰고, 비할 데 없이 높은 믿음을 지닌 성모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 사업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모님은 그 신비를 구세주와 더불어 생활하셨고, 그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수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레지오 단원은 성모님을 본받고, 성모님께 다정하게 감사드리며, 성모님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단테(Dante)의 말대로 성모님을 꾸준히 공부하고 성모님께 크나큰 사랑을 드리며, 기도와 활동과 영성 생활 안으로 성모님의 생각을 끌어 들여와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망각한 채 성모님께 의존한다. 이처럼 레지오 단원의 영혼이 성모님의 모습과 생각으로 가득 채워짐으로써 두 영혼은 단 한 영혼이 된다. 성모님의 영혼에 깊이 잠긴 레지오 단원은, 성모님의 믿음과 성모님의 겸손과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 그리고 그 성심에서 나오는 성모님의 기도의 힘을 나누어 가지고서, 모든 삶의 궁극 목표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즉시 변모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모님이 당신의 단원들 안에서 당신의 단원들을 통하여 레지오의 모든

임무에 참여하시고 영혼들을 어머니로서 돌보시기 때문에, 결국 단원들은 활동 대상자와 동료 단원들 영혼 하나하나에서 우리 주님을 뵈고 섬기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성모님이 하느님이신 당신 아드님의 실제 몸을 돌보시고 섬기셨던 바로 그 고귀한 사랑과 정성으로 활동 대상자와 단원들 영혼 하나하나에서 우리 주님을 보시면서 섬기시게 된다.

이와 같이 레지오 단원들이 성모님을 생생하게 모방하게 되었을 때, 그 군단(즉 레지오)은 성모님의 사명에 온전히 일치하고 성모님의 승리를 보장받는 진정한 성모님의 군단 즉 레지오 마리아가 된다. 이 레지오는 세상 곳곳에 성모님을 모셔다 드리게 되고, 성모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빛을 주시어 이내 찬란히 빛나게 하실 것이다.

“성모님과 더불어 즐겁게 살고, 성모님과 더불어 모든 시련을 견디어 내며, 성모님과 더불어 일하고, 성모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성모님과 더불어 여가를 즐기고, 성모님과 더불어 쉬어라. 성모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그대의 팔에 예수님을 감싸 안고, 예수님 성모님과 더불어 나자렛에서 살 집을 마련하라. 성모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 곁에 머무르며, 그대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묻어라. 예수님 성모님과 더불어 부활하고, 예수님 성모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에 올라,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죽으라.” (토마스 아 캠퍼스 Thomas a Kempis : 수련자들에게 한 설교)

## 2. 성모님의 겸손을 본받음은 레지오 활동의 뿌리이며 수단이다

레지오는 단원들에게 말할 때 군대나 전투 용어를 자주 쓴다. 레지오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계시는 진을 친 군대와 같은 성모님이 사 용하시는 무기이자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모님의 활동이므로 그러한 용어가 잘 어울린다. 더욱이 군사적 개념은 사람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레지오 단원들은 자신이 군대의 일원이라는 것을 의식함으로써, 활동할 때에 스스로 군인과 같은 굳센 정신을 보이라고 촉구된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들의 싸움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므로 하늘나라의 전략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참된 레지오 단원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은 오로지 보잘것없고 순수한 잿더미와 같은 특성들에서 솟아오른다. 이러한 특성들 가운데 특히 겸손의 덕이 있는데, 세상은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경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겸손의 덕은 고귀하고 굳세어, 이 덕을 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흔치 않는 기쁨과 힘을 가져다준다.

레지오 조직에서는 겸손이 매우 독특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겸손은 레지오 사도

직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다. 레지오의 활동은 대인 접촉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 대인 접촉의 효과를 높이고 발전시키려면, 단원들이 활동 대상자들에게 부드럽고 소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오로지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다. 그러나 레지오에게 겸손은 단순히 외적 활동의 수단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겸손은 바로 외적 활동이 나오는 요람이라는 것이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효과 있는 레지오 활동을 할 수가 없다.

토마스 데 아퀴노(Thomas de Aquino) 성인의 말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겸손의 덕을 지나라고 당부하셨다. 겸손의 덕을 지닐 때, 인류 구원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모든 다른 덕의 가치는 겸손의 덕을 바탕으로 한다. 하느님께서 겸손이 있는 곳에 은혜를 베푸시며, 겸손이 사라지면 은혜를 모두 거두어 가신다. 모든 은총의 근원이신 주님의 강생도 겸손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졌다. 성모님은 ‘마니피캣(Magnificat, 마리아의 노래)’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팔의 큰 힘을 보여주셨다고 찬미하는데, 이 말은 하느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안에 권능을 떨치셨다는 뜻이다. 성모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신다. 하느님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하느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시도록 하여 낡은 세상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도록 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비천함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모님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완덕, 사실상 무한 경지에까지 이른 완덕을 갖추셨고, 당신 스스로도 그 점을 잘 알고 계셨다. 그런데도 왜 성모님은 겸손의 표본이 되실 수 있었을까? 성모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은 마찬가지로 당신이 어떠한 인간의 자손들보다도 더욱 완벽하게 구원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성모님은 자신이 지닌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룩한 빛 한 줄기 한 줄기가 당신 아드님의 공로임을 아시고, 또한 그러한 생각을 늘 마음속에 생생하게 간직하셨다. 성모님의 비할 데 없는 지성은 당신께서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느님께 누구보다도 더 많은 빛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성모님의 고귀하고 우아한 겸손의 태도는 힘들지 않고 한결같았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이 성모님의 태도를 두루 살펴본다면, 참된 겸손의 본질은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이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쓸모없음뿐이라는 것이다.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신 홀로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또는 완전히 거두어 가실 수 있다. 레지오 단원이 하느님께 자신이 종속되어 있음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의 추구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임무를 뚜렷이 선호하게 되고, 멸시와 거절을 참아낼 준비가 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하느님의 뜻이 표명되었을 때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루카 1,38)라고 하신 성모님의 말

씀을 투영하는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레지오 단원이 그의 모후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치는 이 일치를 갈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일치를 이루기 위한 능력도 요구한다. 훌륭한 군인이 되어 보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이라도 군 조직의 효율적인 톱니바퀴가 될 만한 자질을 아직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그 결과 그는 지휘관과 효과적인 일치를 이루지 못하여, 군사 계획 수행에 방해가 되고 만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지오 단원이 그의 모후께서 세우신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를 열망하지만, 성모님이 그토록 열렬히 주시기를 바라는 역할을 받을 만한 능력이 아직 그에게 없을 수 있다. 세속 군대에서는 이러한 무능력이 용기·지식·신체 결함 등 때문일 수 있다. 레지오 단원의 경우 이러한 무능력은 겸손의 덕이 없다는 데에서 발생할 수 있다. 레지오의 목적은 단원들을 성화시켜, 그 성화의 빛이 영혼들의 세계에까지 발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서는 성화될 수 없다. 더구나 레지오 사도직은 성모님을 통하여 작동된다. 그러나 성모님을 어느 정도 닮지 않고서는 성모님과 일치할 수 없으며, 성모님이 지니신 특별한 겸손의 덕을 갖추지 않고서는 성모님을 닮았다고 할 수 없다. 성모님과 일치하는 모든 레지오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건 즉 뿌리라면, 이 뿌리가 의존하고 있는 토양이 바로 겸손이다. 토양에 결함이 있다면 레지오의 생명은 시들고 만다.

결과적으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레지오의 싸움은 반드시 각 단원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 각 단원은 자기 자신과 전투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뿌리와 치르는 이 치열한 싸움, 이른바 순수한 의지를 얻기 위한 부단한 노력은 얼마나 힘겨운 일이겠는가! 이는 일생동안 치러야 할 싸움이다. 자신의 노력에만 의지한다면 평생 실패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물리치려는 이 싸움에서마저 오히려 이기심이 파고들기 때문이다. 모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자신의 힘이 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사람에게는 오직 단단한 발판이 필요할 뿐이다.

레지오 단원들이여, 여러분의 튼튼한 발판은 성모님이시다. 온전한 신뢰심으로 성모님께 의탁하라. 성모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겸손의 덕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성모님께 의탁하는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는 중에 여러분은 가장 훌륭하고 단순하며 포괄적인 겸손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은 이 길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은총의 비밀 통로로, 우리가 재빨리 아주 적은 노력만으로도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게 해주어, 우리를 하느님으로 가득 채워주고 완전하게 해줍니다.”고 말하였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레지오 단원이 성모님께로 방향을 돌릴 때에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등을 돌려야 한다. 이때 성모님은 이 움직임에 취하시어 높이 들어

올리신다. 그리고 이 움직임을 자기 자신에게서 죽는 초자연적인 죽음으로 만들어주신다. 이 죽음은 준엄하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수행하는 일이다.(요한 12,24-25 참조) 겸손하신 동정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의 발꿈치로 ‘자아’라는 뱀이 지닌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의 머리들에 상처를 입히신다.

(가) ‘자기 현시’라는 뱀의 머리

교회가 ‘정의의 거울’이라고 부를 정도로 풍부한 완덕을 갖추신 성모님은 은총 왕국에서 무한한 힘을 부여받아 소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장 비천한 여종으로 무릎을 꿇으신다. 그렇다면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우리의 위치와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나) ‘이기심’이라는 뱀의 머리

레지오 단원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영적, 현세적 소유물을 성모님께 드려 성모님 뜻대로 쓰시도록 하였으며, 계속해서 그와 똑같이 완전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모님을 섬긴다.

(다) ‘자만심’이라는 뱀의 머리

마리아께 의지하는 습관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의 보잘것없는 힘을 믿지 않게 한다.

(라) ‘자부심’이라는 뱀의 머리

성모님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협력 관계에 부적당한 자임을 깨닫게 된다. 이 협력 관계에 레지오 단원은 자신의 골치 아픈 약점 말고는 무엇을 기여하였다는 말인가?

(마) ‘자기애’라는 뱀의 머리

무엇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인가! 모후께 대한 사랑과 찬미에 여념이 없는 레지오 단원이라면 모후로부터 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

(바) ‘자기만족’이라는 뱀의 머리

레지오 단원이 성모님과 맺은 그러한 동맹 관계에서는 더 고귀한 기준이 우세해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성모님을 모범으로 삼고 성모님의 티 없이 순수한 지향을 열망한다.

(사) ‘출세욕’이라는 뱀의 머리

우리가 성모님의 방식대로 생각할 때, 오로지 하느님만을 알려고 노력하게 되므로, 자신의 앞날이나 보상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아) ‘아집’이라는 뱀의 머리

성모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레지오 단원은 자기 마음이 충동하는 바를 신뢰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은총의 속삭임에 열심히 귀를 기울인다.

진정으로 자아를 잊어버리는 레지오 단원은 성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성적 감화를 받아들이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성모님은 이러한 단원 안에 인간 본성을 초월하는 힘과 희생정신을 길러 주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만드시어(2티모 2.3 참조) 군인 직업이 요청하는 바를 열심히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

“하느님께서서는 무(無)에서 일하시는 것을 즐기신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바닥으로부터 당신의 전능으로 지으신 창조물들을 이끌어 올리신다.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열정으로 충만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영광을 드높일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임을 깊이 받아들여 그 심연 속에 잠겨 보도록 하자. 비천함이라는 짙은 그늘 아래 피신해보자.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의 의욕에 넘친 노력을 당신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보자. 이 목적을 위하여 하느님께서서는 흔히 기대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는 복되신 성모님만큼 하느님의 영광에 이바지하신 분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모님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유일한 목표는 자신을 무로 돌리는 일이었다. 성모님의 겸손은 하느님의 계획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모든 계획이 쉽게 성취되도록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성모님의 겸손이었다.”(그루 Grou : 예수와 마리아의 영성 생활)

### 3.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사도직의 의무를 요구한다

이 교본의 다른 곳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것도 우리의 임의대로 취사선택(取捨選擇)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통과 박해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로지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맞아들일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리스도는 나뉘어질 수 없는 오직 하나의 실체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평화와 행복을 찾아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일을 겪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이처럼 서로 반대되는 요소가 섞여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고통 없이 승리가 없고, 가시관 없이는 왕좌가 없으며, 쓰라림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있을 수 없다. 하나를 얻고자 손을 뻗으면 다른 하나도 함께 달려 오게 된다.

이 원리는 우리의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성모님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놓고, 그중 우리 마음에 드는 부분만을 골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모님이 겪으시는 고통을 함께 하지 않으면서 성모님이 누리시는 기쁨만을 함께 나눌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 성인이 했던 것처럼 성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자 한다면(요한 19.27 참조), 성모님의 모든 면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모님의 어느 한 면만을 받아들하려고 한다면, 성모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성모 신심이란 성모님의 고귀한 성품과 사명의 온갖 측면을 재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주된 관심을 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성모님을 고귀한 모범으로 여기고 그분의 덕목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일은 값진 일이다. 그러나 그분의 덕목만 받아들이고 그 이상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모님에 대한 부분적인 신심이자 참으로 인색한 신심이 될 것이다. 성모님께 아무리 많은 기도를 바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삼위께서 성모님을 맞아 그느르시고, 성모님에 의지하시고, 성모님으로 하여금 성삼위의 속성들을 드러내도록 하신 깜짝 놀랄 수많은 방법들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모님은 이 모든 공경의 찬사를 받아 마땅한 분이시고 실제로 그러한 찬사를 받으셔야 하지만, 하지만, 그러한 찬사는 전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성모님에 대한 맞맞은 신심은 오로지 성모님과의 일치를 통해서만 완성된다. 일치란 필연적으로 성모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성모님의 삶은 주로 찬미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전달하는 것에 있다.

성모님의 한평생과 사명은 먼저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 다음으로는 인류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이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St. Augustine)의 말처럼, 성삼위께서는 영원으로부터 깊이 생각하신 끝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쓰시려고 성모님을 준비하시고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날 성모님은 당신의 놀라운 활동에 발을 들여놓으셨고, 그 후로 줄곧 집안 살림을 맡아 돌보는 바쁜 어머니가 되셨다. 성모님이 맡으신 이 일은 처음 얼마 동안은 나자렛 마을에 국한되어 수행되었다. 그러나 나자렛의 이 작은 집은 온 세상을 아우르는 집이 되었고, 성모님의 아드님은 전 인류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집안 살림을 돌보는 성모님의 일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나자렛으로부터 크게 번창한 그 일은 성모님 없이는 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돌보아 드리는 것은 성모님이 하시는 돌봄을 보충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사도는 성모님이 하시는 어머니로서의 직분을 거들어 드릴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모님은 “나는 원죄 없는 잉태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도직이로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을 것이다.

영혼들을 돌보는 어머니 역할은 성모님의 본질적 임무이고 성모님의 삶 자체이다. 그

결과 우리가 성모님의 어머니 역할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성모님과 참으로 일치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하는 것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는 영혼들을 위한 봉사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성모님이 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스도교 신자가 사도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사한 생각을 드러낸다. 전자든 후자든 둘 다 불완전하고 비현실적이고 실체가 없으며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레지오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모님과 사도직이라는 두 원리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라는 단일 원리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이 원리는 사도직과 (올바로 이해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를 아우른다.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바라기만 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아무 가치도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모님께 말로만 봉사를 드리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사도직 임무가 ‘내게도 일이 주어지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하늘로부터 저절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태만한 신자들은 아무 일도 말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가 사도가 되는 단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사도직 활동을 말아 착수하는 것이다. 사도직 활동을 말아 시작하게 되면 성모님은 즉시 우리의 활동을 당신 품에 받아들여시고 당신의 어머니 역할 안에 넣어 주신다.

더욱이 성모님은 우리가 도와 드리지 않으면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성모님처럼 큰 힘을 지니신 분이 나약한 우리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인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느님 섭리의 한 부분이다. 성모님이 간직하고 계시는 은총의 보고(寶庫)가 넘쳐흐른다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도와 드리지 않으면 성모님은 그 은총을 나누어 주지 못하신다. 만일 성모님이 바라시는 대로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신다면 온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회두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성모님은 우리가 당신께 협력할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가 도와 드리지 않으면 성모님이 어머니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영혼들은 굶주려 죽게 된다. 그러므로 성모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성모님은 열렬히 환영하시며, 거룩하고 알맞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약하고 부적절한 사람들까지도 하나하나 모두 다 활용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람들도 모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성모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가장 미약한 사람이라도 성모님이 지니신 힘을 영혼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좀 더 나은 사람을 통하여 성모님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신다. 이는 맑은 유리창으로는 햇빛이 눈부시게 들어오지만, 때가 잔뜩 낀 유리창으로는 힘겹게 들어오는 이치와 같

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이 범한 죄를 기워 갚기 위해서 고통과 사랑 속에 십자가 나무를 함께 지고 가신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아니신가? 예수님은 샘이시고, 성모님은 그 수로이시다. 이 은총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우리의 천상 보금자리를 되찾게 된다.”(교황 비오 12세의 1940년 4월 21일 담화)

“주님께서는 성모님을 자비로우신 어머니, 우리의 모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하느님 은총의 중재자, 하느님 보화의 분배자로 높이 들어 올리셨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성모님을 높이 받들자. 성자께서는 당신 나라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으로 당신의 어머니를 빛나게 해주신다.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업에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와 협조자로서 순교자의 왕이신 예수님과 일치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영원토록 예수님과 일치해 계시면서, 구원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을 분배하는 일에서 무한한 힘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계신다. 성모님의 왕국은 성자의 왕국처럼 참으로 넓기에 성모님의 지배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교황 비오 12세의 1940년 5월 13일 담화)

#### 4. 성모님께 봉사할 때는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모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구실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조직에 결함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반대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성모님과 더불어 그리고 성모님을 위하여 가장 완벽하게 활동해야 하므로, 그가 성모님께 드리는 선물은 봉헌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품질이어야 한다. 그는 언제나 힘차고 능숙하며 꼼꼼하게 활동해야 한다. 그런데 가끔 통상적인 레지오 활동이나 확장 사업 또는 단원 모집 등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쁘레시디움이나 단원들에게서 잘못이 발견되곤 한다. 이에 대해서 단원들은 “나는 나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복되신 성모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성모님이 뜻하시는 대로 좋은 성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라고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한다. 이러한 변명은 대개 자신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일종의 미덕으로 돌리려고 하는 열성적인 신자들로부터 듣는다. 이들은 단체가 세운 방법에 따라 자신의 노력을 바치는 일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또한 우리가 큰 힘을 지니신 성모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으므로 우리 인간이 기울이

는 노력의 정도는 크든 작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추론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레지오의 사업에 적용하려는 위험도 존재한다. 이는 마치 백만장자와 동업을 하는 가난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미 넘쳐흐르는 공동 기금에 몇 푼 더 보태려고 기를 써야 하느냐?”고 따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제 레지오 단원들이 활동에 나설 때 그들의 자세를 좌우하는 기본 원리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 기본 원리란,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이 당신의 활동에 쓰시는 단순한 도구만이 아니라, 인류의 영혼을 영신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구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모님과 함께 일하는 참된 협력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 관계에서는 한쪽에서 모자라는 것을 다른 쪽이 보충해 준다. 단원은 자신의 활동과 능력 즉 자신의 모든 것을 성모님께 내어 드리고, 성모님은 당신 자신을 당신의 모든 순결과 능력과 함께 단원에게 내어 주신다. 각자 아낌없이 기여해야 한다. 단원 쪽에서 이러한 동반자 정신을 준수한다면, 성모님은 결코 부족함 없이 내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활동 사업의 성패는 오로지 레지오 단원 쪽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단원은 자신의 모든 지성과 능력을 세심한 방법과 인내심으로 완성시켜 이 활동 사업에 쏟아야 할 것이다.

가령 단원들이 활동에 쏟는 노력과는 별도로 성모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성과를 이루고자 하심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레지오 단원들은 모든 일이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여기며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모님의 도우심을 끝없이 신뢰하면서도, 언제나 최고도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성모님을 신뢰하는 만큼, 기꺼이 내어놓는 단원들의 마음도 커져야 한다. 가없는 믿음은 열성적이고 체계적인 노력과 반드시 상호 작용해야 한다는 이 원리는 성인들이 한 다음과 같은 말로도 표현될 수 있다. 즉 기도할 때에는 자신의 활동에는 아무 것도 달려 있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이 그 기도에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싸울 때에는 만사가 절대적으로 그 싸움에 달려 있는 것처럼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활동의 쉽고 어려움을 스스로 가늠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를 판단하거나 “얼마나 적게 노력해야 저기 보이는 것을 얻을 수 있지?” 라는 등의 생각을 해서 안 된다. 세속의 일에서도 그런 타산적인 정신으로는 거듭 실패하기 마련이다. 영적인 사업에서는 그런 약삭빠른 정신이 스며들면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은총을 잃게 되므로 언제나 실패하고 만다. 더욱이 인간의 판단은 믿을 수가 없다. 겉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시에 성취되는가 하면,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은 열매를 끝내 손안에 넣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마는 경우도 있다. 영신 세계에서 이기적인 영혼은 점점 보잘것없이 작아져서 마침내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끝없는 노력뿐이다. 레지오 단원은 하찮든 중요하든 모든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다.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어떤 일을 완수할 수 있고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경우이다. 이때에는 필요한 만큼의 노력만 기울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시인 바이론(Byron)의 말처럼 ‘나비 한 마리를 부수거나 모기 한 마리 잡는 데에 헤라클레스의 몽둥이를 휘두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들은 그들이 활동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단원들은 임무의 쉽고 어려움과는 전적으로 무관하게 성모님을 위하여 일한다. 그리고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미약하든지 위대하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모님의 전폭적인 협력을 얻어 내어, 필요한 곳에서는 기적까지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해도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행한다면, 성모님은 큰 힘을 보태 주시어 우리의 미약한 활동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만일 단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는데도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면, 성모님은 그 남은 부분을 채워 주시어 단원과의 공동 사업이 이상적으로 끝나도록 해주실 것이다.

레지오 단원이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열 배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그 노력은 조금도 허비된 것이 아니다. 단원들의 모든 활동은 성모님을 위하여 또한 성모님의 거대한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치는 것이 아닌가? 성모님은 이렇게 남는 노력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크게 불리시어, 주님의 가족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해 주신다. 나자렛의 성실하신 주부의 손에 맡겨진 것은 무엇이든 조금도 유실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레지오 단원의 노력이 성모님께 마땅히 바쳐야 하는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고자 하시는 성모님의 손은 묶이고 만다. 그리하여 공동 재산에 관하여 성모님과 맺은 계약이 놀랄만한 가능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원의 태만으로 말미암아 파기된다. 오! 영혼들에게도 그리고 자기 힘에만 의존해야 하는 단원 자신에게도 얼마나 안타까운 손실인가!

그러므로 어떤 단원이 자기는 성모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다고 우겨대면서 자신의 불충분한 노력이나 어설픈 활동을 합리화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성모님께 의탁한다고 하면서 그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피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의탁은 틀림없이 설득력이 없고 비열한 것이다. 그러한 단원은 자신이 충분히 짊어질 수 있는 짐을 성모님의 어깨에 떠넘기려 애쓴다. 기사도 정신을 올바로 갖춘 기사라면 어느 누가 그런 이상한 태도로 귀부인을 모시겠는가!

따라서 레지오 단원이 성모님과 맺은 협력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마치 새로운 주제를 다루듯이, 한 번 더 설명하고자 한다. 레지오 단원은 자기 능력의 최대한도를 성모님께 바쳐야 한다. 단원이 바치기를 거부한 것을 보충하는 일은 성모님이 해야 할 몫이 아니다. 레지오 단원이 제공할 수 있으며 또 하느님의 보고(寶庫)에 그가 응당

바쳐야 할 노력과 방법과 인내심과 생각을 덜어주는 일은 성모님에게 맞갖은 일이 아닐 것이다.

성모님은 아낌없이 베풀고자 하시지만 오직 너그럽게 베푸는 영혼들에게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성모님은 레지오의 자녀들이 당신이 간직하고 계신 무진장한 은총의 보화를 마음껏 꺼내 가기를 바라시면서, 당신의 아드님의 말씀을 빌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마르 12,30) 봉사하라고 단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하신다.

레지오 단원은 오로지 성모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연적으로 타고난 것을 보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하고 초자연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미약한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그 미약한 인간의 노력이 성취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엄청난 일들이다. 이 엄청난 일들은 산을 송두리째 들어내어 바다를 메우고, 땅을 평탄하게 고르며, 굽은 길을 바르게 펴서 하느님의 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쓸모없는 종들이지만 매우 알뜰하신 주인님을 섬기고 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 한 방울로부터 우리 이마에 흐르는 땀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낭비하시는 일이 없다. 나는 이 책이 어떤 운명에 놓이게 될지 알지 못한다. 내가 이 책을 다 마칠 수 있을는지, 아니면 나의 펜 밑에 펼쳐져 있는 이 한쪽만이라도 끝까지 다 쓰게 될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남은 힘과 여생을 많은 적든 이 책을 마치는 데 바쳐야 한다는 것만은 잘 알고 있다.”(프레데릭 오자남 Frederick Ozanam)

## 5. 레지오 단원들은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실천해야 한다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실천하는 레지오 단원들은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 드 몽포르 성인이 가르쳐 준 신심의 독특한 내용을 완전히 터득하고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성인은 ‘참된 신심’ 또는 ‘마리아의 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모 신심을 가르치고 있는데,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과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두 저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더욱 알차게 설명하고 있다(부록 5 참조).

이 신심은 성모님과 정식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한다. 레지오 단원은 이 계약을 통해 영적이거나 현세적이거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생각과 행실과 소유물과 더불어

어 자신의 전부를 아무리 적고 사소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성모님께 바쳐드린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소유물은 아무것도 없는 노예와 같은 상태가 되어, 전적으로 성모님께 의탁하고 성모님이 쓰시도록 자신을 철저히 내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세속의 노예는 성모님의 노예보다는 훨씬 자유롭다. 세속 노예의 경우, 자신의 생각과 내면생활은 스스로 다스리므로 자신에 관한 일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러나 성모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 영혼의 움직임, 숨겨놓은 재산, 그리고 가장 깊숙한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모두 성모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성모님께 드려서 성모님이 하느님을 위해 쓰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순교 행위이며, 성모님을 제단삼아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사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제사야말로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 제사와 참으로 같지 않겠는가. 그리스도께서도 성모님의 태중에서 탄생하셨고, 성모님의 팔에 안겨 하느님께 봉헌되었으며, 그 후 당신 일생의 매 순간을 통하여 성모님의 품에 안기셨고, 마침내 골고타의 성모 성심의 십자가 위에서 제한되었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정식으로 거행하는 ‘봉헌식’에서 시작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봉헌 후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이다. ‘참된 신심’은 하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태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성모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고 겨우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만을 차지하는 데 그치시도록 한다면, 비록 성모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자주 반복한다 하더라도 이는 한낱 스쳐 지나가는 기도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성모 신심은 마치 땅에 심어지긴 했으나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마음이 항상 ‘봉헌’ 행위를 의식하고 그것에만 매달려 있어야 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 몸은 호흡과 심장의 박동으로 생명을 유지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몸 안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 ‘참된 신심’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 신심은 우리들의 삶에 설 새 없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성모님이 우리를 차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따금 의도적인 생각과 행동과 화살기도로 새롭게 떠올리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신이 성모님께 매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막연하게나마 늘 마음속에 간직하여 변함없이 인정하고, 부딪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전반적으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에 열정이 솟는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참된 신심의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때때로 열정은 일을 안이한 방식으로 처리하게 만들거나 신뢰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유의할 점은 ‘참된 신심’은 열정이나 감상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모든 고층 건물들이 그러하듯이 ‘참된 신심’은 햇별을 받아 빛날 수는 있지만, 그 신심의 깊은

기초는 고층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바위처럼 차갑다.

이성은 보통 냉철하다. 가장 단호한 결심은 얼음장같이 차가울 수 있다. 신앙 그 자체도 때로는 다이아몬드처럼 냉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참된 신심'의 기초를 이룬다. '참된 신심'은 이 세 가지 기초 위에 세워졌을 때 지속된다. 그리고 산을 허물어뜨리는 된서리와 폭풍이 닥쳐오더라도 '참된 신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

'참된 신심'을 실천하는 데서 얻는 은총이나 이 신심이 교회의 신심 생활 안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미루어 보면, 이 신심이 분명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뇽 드 몽포르 성인이 주장한 내용이다. 성인에 의하면, 이 신심을 실천하는 이들에게는 많은 은총이 약속되어 있으며, 약속에 결부된 조건이 충족되기만 한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제 일상의 체험에 관하여 말해보자. 피상적인 관심사 이상으로 이 신심을 깊이 실천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고, 이 신심이 가져다 준 은총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확신에 차 있는지를 살펴보자. 그들이 혹시 감정이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라. 그들은 한결같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할 할 것이다. 기만당했다고 여기기에는 이 신심이 가져다준 열매가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참된 신심'을 가르치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경험한 은총이 모두 믿을 만하다고 볼 때, 이 신심이 우리의 내면생활을 더욱 깊이 있게 하고 이를 이타적이고 순수한 지향이라는 특별한 '인호'로 봉인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리하여 자신이 올바르게 인도되고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며, 자신의 삶이 가장 유익한 일에 쓰이고 있다는 흐뭇한 확신을 갖게 된다. 초자연적인 관점과 단호한 용기와 더 확고한 믿음을 지니게 되어 어떠한 일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유연함과 지혜를 지니게 되어 자신의 고유한 자리에서 강점을 유지하게 된다. 더욱이 이 모든 은총과 덕행을 보호해주는 달콤한 겸손의 덕을 지니게 된다. 이 모든 은총은 비범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 은총이 '우리에게 오는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종종 자신의 공로나 타고난 능력을 명백히 뛰어넘는 중대한 일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부르심과 함께, 영광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짐을 주저하지 않고 짊어질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의 손길도 받는다. 한마디로, '참된 신심'을 실천하며 자신을 성모님의 노예 신분으로 낮추는 값진 희생을 바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드러나도록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약속된 수백 배의 상급을 그 대가로 받게 된다. 우리가 섬길 때 다스리게 되고, 베풀 때 받게 되며, 무릎을 꿇을 때 승리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영신 생활을 순전히 개인적 이득이나 손실에 관련된 문제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가진 보화를 영혼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도 맡겨 드려야 한다고 권하면 당황해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성모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심판대에 설 때 빈손이 될 터이니, 연옥에서 더욱 오래 머무르게 되지 않겠는가?” 이처럼 질문하는 이들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대가 심판받는 바로 그 자리에 성모님도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흔쾌히 대답할 수 있다. 이 대답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기적인 생각에서보다는 대개 당혹감에서 나온다. 우리가 지닌 영신적 보화를 남김없이 성모님께 바친다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바치는 기도 즉 가족과 친구, 국가와 교황 등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모두 떨쳐 버리고 과감히 자신을 봉헌하자. 성모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안전하다. 성모님은 하느님 그 자신의 보화를 수호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모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수호하는 분이 되실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자산과 부채 즉 채권과 채무를 저 지고하신 성모 성심에 맡겨 드리자. 성모님은 그대를 대할 때, 마치 그대 외에는 다른 자녀를 두지 않으신 것처럼 대하실 것이다. 그대의 구원과 성화, 그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성모님의 관심사이다. 그대가 성모님의 지향을 위하여 기도 바칠 때, 바로 그대 자신이 성모님의 첫 번째 지향이 된다. 우리는 지금 레지오 단원에게 희생하라는 촉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을 매매에서는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자리가 아니다. 매매에서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봉헌 행위의 근본 자체를 없애버리고 봉헌의 가치를 좌우하는 희생의 특성을 없애버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옛적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던 만 명이 훨씬 넘는 군중을 모두 배불리 먹인 성경 이야기(요한 6,1-14 참조)를 떠올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것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음식을 가져왔다. 그는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공동선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그는 기꺼이 내놓았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몇 개 안 되는 보리빵과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쪼개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마침내 그 엄청난 수의 군중이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배불리 먹었고 그 가운데는 보리빵과 물고기를 선뜻 내놓은 바로 그 사람도 들어 있었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를 차고 넘치게 채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보리빵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가 무슨 소용 있겠어요? 더구나 여기 함께 와 있는 제 가족들도 배고플 테니 이 음식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았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바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받았다. 그리고 틀림없

이 그들은 열두 광주리에 대한 일종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그것을 주장하고자 하였다면 말이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꺼이 바치는 후한 영혼들을 항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해 주신다. 우리가 드리는 선물은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데 쓰인다. 게다가 우리가 바치는 희생 때문에 막상 우리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뜻하는 바가 손해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넘쳐나도록 되돌려 받으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느님의 은총을 얻게 된다.

이제 우리의 보잘것없는 보리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성모님께 달려가 그 팔에 안겨 드리자. 그리하여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것을 더욱 크게 불리시어 이 세상 메마른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무수한 영혼들을 먹여 기르시도록 해 드리자.

자신을 봉헌한다 해서 평소에 바치는 기도나 하던 행동을 바꿀 필요는 없다. 평소의 생활은 그대로 이어지고, 통상적인 지향과 모든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도도 그대로 계속 바칠 수 있다. 다만 이제부터는 성모님이 즐겨 받으시도록 마음을 향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성모님은 하느님이신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과거에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우리가 성모님의 분부대로 그 사랑과 희생의 향아리에 일상생활에서 겪는 잡다한 일들, 즉 아무 맛없는 물을 쏟아 붓기만 한다면, 카나의 기적은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 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최상의 은총으로 변화되는 것이다.”(꾸생 Cousin)

## 제7장 레지오 단원과 거룩한 삼위일체

레지오 마리아가 맨 처음 취한 단체 행동이 성령께서 오시도록 그 이름을 불러 기도를 바침으로써 성령께 말씀을 건네고, 이후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과 그분의 성자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마찬가지로, 몇 년 후 백실리움의 도안이 완성되었을 때에도 똑같은 특징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성령께서는 백실리움 표장 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 계셨던 것이다. 백실리움의 도안이 신학적 고찰이 아닌 예술적 착상에서 나온 것임을 미루어볼 때 이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백실리움은 비종교적 표상인 로마 군대의 깃발을 받아들여 마리아 군단의 목적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었다. 독수리 대신 비둘기를 넣고 황제나 집정관의 얼굴은 성모님의 모습으로 대치하였다. 그런데 마지막에 완성된 구도는 성령께서 생명의 은총을 세상에 내리시는 통로로 성모님을 사용하시면서 레지오를 장악하고 계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그 후 뗏세라의 그림이 그려졌을 때에도 성령께서 레지오를 품어 보호하신다는 똑같은 신심의 자세가 드러났다.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악의 세력에 맞서는 끝없는 싸움이 완수된다. 이때 동정녀께서는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시고 성모님의 군단은 예언된 승리를 향해 진군하는 것이다.

덧붙여 레지오의 색깔이 예상했던 푸른색이 아니고 붉은색이라는 것도 흥미로운 정황이다. 이는 백실리움과 뗏세라의 그림에 나타나는 성모님의 후광을 어느 색으로 하느냐 하는 사소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레지오의 상징을 통해 성모님은 성령으로 가득하신 분으로 드러나야 하고 이는 성모님의 후광을 성령의 빛깔로 채움으로써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레지오의 빛깔 역시 붉은 색이어야 한다는 데까지 이어졌다. 뗏세라의 그림에서도 성모님은 성령과 더불어 휘황찬란하게 타오르는 성서 속의 '불기둥'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역시 동일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레지오 선서문을 작성할 때에도, 처음에는 다소 의외로 생각되었지만, 선서는 성령께 하는 것이지 레지오의 모후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일관된 생각이 유지되었다. 이로써 이미 앞에서 살펴본 그 중요한 특징이 다시 한 번 드러난다. 즉 가장 작은 개별 은총을 베푸시는 일까지 포함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언제나 성령이시고 이를 대행하는 분은 언제나 성모님이라는 것이다. 성령께서 성모님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영원하신 성자가 사람이 되셨다. 이로써 인류는 거룩한 삼위일체와 결합되고, 성모님 자신은 각 위격(位格)과 독특하고도 구분되는 관계에 놓이신다. 하느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일이 특별한 은총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적어도 성모님의 이 세 가지 특별한 위치를 살펴보아야 한다.

성인들은 하느님의 세 위격을 구분하여야 하고 각 위격에는 그에 맞갖은 존경을 드러야 한다고 집요하게 강조한다. 아타나시오 신경은 이러한 요구와 관련하여 강경하고도 위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근거를 창조와 강생의 궁극 목적이 삼위일체의 영광이라는 사실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알아듣기 힘든 신비를 희미하게라도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인가?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서 비추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총을 성모님께 자신 있게 청구할 수 있다. 성모님에게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결정적으로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주님 탄생 예고’(the Annunciation)가 이루어진 역사적인 순간에 일어났다. 거룩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당신의 대천사를 통하여 당신의 본성을 다음과 같이 마리아에게 드러내셨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루카 1,35)

이 계시에서 하느님의 세 위격 모두 또렷하게 명시되고 있다. 먼저 성령으로, 그분께서는 강생을 이루시는 일이 맡겨졌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장차 태어날 아기의 아버지이시다. 세 번째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루카 1,32) 바로 그 아기이시다.

성모님이 하느님의 각 위격과 다른 방식으로 맺고 있는 관계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세 위격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하느님의 제2위격에 대하여 마리아가 맺고 있는 관계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계인 어머니로서의 관계이다. 그러나 마리아의 모성은 보통의 인간관계를 한 없이 능가하는 그러한 친밀감과 영속성과 특성을 지닌 모성이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경우 영혼의 결합이 주된 것이고 육체의 결합은 부수적인 것이었다. 그 결과 예수님의 탄생으로 육체가 분리되었을 때조차 두 분의 결합은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강도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갔다. 그 때문에 마리아는 구원 사업에 협력하고(Co-Redemptress) 은총을 중재하는 분(Mediatress)이시라는 의미에서 하느님의 제2위격의 “협조자”(helpmate)가 된다고 교회에 의하여 선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제2위격과 같은 분”이 된다고 선언될 수 있다.

성령과의 관계에서 마리아는 흔히 ‘성령의 궁전’ 또는 ‘성령의 지성소’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성령께서 마리아를 당신 자신에 결합시키시어 품위에서 당신 다음가는 분으로 만드셨다는 현실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 성령께서는 마리아를

당신 안에 받아들이시어 당신과 하나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기에 성령은 마리아의 영혼 그 자체와 같으시다. 마리아는 단순히 성령의 활동의 도구나 통로가 아니다. 마리아가 행동을 취할 때 성령께서도 행동을 취하시고 마리아의 중재가 거부된다면 성령의 중재도 거부될 정도로 마리아는 성령과 함께 일하는 지성적이고 깨어 있는 협력자이다.

성령은 사랑, 아름다움, 힘, 지혜, 순수이시며 하느님께 속한 그 밖의 모든 것이시다. 성령이 풍부하게 내리시면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충족될 수 있으며, 아무리 고통스러운 문제라도 하느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성령을 협조자로 모시는 이는(시편 77편) 전능의 파도를 타게 된다. 그처럼 성령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가 성모님이 성령과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는 일이라면,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진정한 한 위격으로 구분되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대하여 당신만의 고유한 사명을 지니신 분임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일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마음을 꽤 자주 성령께 향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성령께서 계신 쪽으로 눈길 한 번 주는 것만 포함시킨다면, 복되신 동정녀에 대한 모든 신심 행위가 성령께로 나아가는 넓은 길이 될 수 있다. 레지오 단원들은 특히 묵주기도를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묵주기도는 그 기도가 우리의 모후께 바치는 주된 기도라는 이유 때문에 성령께 바치는 최고의 신심 행위를 구성할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묵주기도에 담긴 20개의 신비는 성령께서 구원의 드라마에서 행하셨던 중요한 개입들을 기념하고 있다.

마리아가 영원하신 성부와 맺고 있는 관계는 흔히 딸로서의 관계로 정의된다. ‘딸’이라는 칭호가 가리키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가) “모든 피조물 중 으뜸, 하느님께서 가장 기꺼워하시는 자녀, 하느님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뉴만 추기경 Cardinal Newman)라는 마리아의 지위.

(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고 있는 충만한 결합. 이 결합을 통하여 마리아는 성부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신비적인 방식으로 성부의 딸이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다) 마리아가 성부와 빼어나게 닮은 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이처럼 성부와 현저하게 닮아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사랑하는 성부에게서 분출되는 영원한 빛을 세상에 베푸는 데에 적합한 자기 되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마리아는 성부와 일종의 인척 관계를 이룬다.”(레피시에 추기경 Cardinal Lépicier)

그러나 ‘하느님의 따님’이라는 이 칭호는 마리아가 성부와 맺고 있는 관계가 성부의 자녀요 마리아의 자녀인 우리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을 충분히 깨닫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드님과 그 아드님의 신비체의 모든 지체들을 낳을 힘을 마리아에게 주시기 위하여, 단순한 피조물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큰 비옥함을 그녀에게 전달하셨다.”(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 드 몽포르) 성부께 대한 마리아의 관계는 모든 영혼에게 생명이 흘러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존재해야 하는 근본적인 요소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감사와 협조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이다. 따라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결합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레지오 단원들이 자주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특히 이러한 지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으셨기에, 올바른 것들을 이상적인 방법으로 청하는 기도다. ‘주님의 기도’를 마땅한 주의를 기울여 가톨릭 교회의 정신으로 바친다면, 이 기도의 목적인 영원하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총에 감사하는 일은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복되신 여인에게 의탁해야 한다는 증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의탁에 관하여 보여주신 본보기를 여기에서 상기해보자. 성부께서는 성모님을 통하여서만 당신 아드님을 보내주셨으며 지금도 보내주고 계신다. 성부께서는 오로지 성모님을 통하여서 자녀를 가지시고 은총을 전달해 주신다. 하느님이신 아드님께서서는 성모님을 통하여서만 보편적인 전 세계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으며, 성령과 일치하여 계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만 날마다 사람이 되시어 탄생하신다. 또한 오로지 마리아를 통하여서 당신 공로와 덕성을 전달하신다. 성령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고, 마리아를 통하여서만 우리 주님의 신비체의 지체들을 탄생시키시며, 오로지 마리아를 통로로 삼아서 은총과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이처럼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많은 본보기를 주셨는데, 극도로 눈이 멀지 않은 이상, 어떻게 성모님 없이 지낼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성모님께 의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 드 몽포르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140항)

## 제8장 레지오 단원과 성찬례

### 1. 거룩한 미사

레지오에서 단원의 거룩함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단원의 거룩함은 으뜸가는 활동 수단이다. 단원은 자신이 지닌 양만큼의 은총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레지오 단원이 단원 생활의 첫발을 내딛을 때에는, 성모님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 이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간구하는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타에서 바치신 희생 제사에서 단 한 번에 모두 흘러나오며, 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는 미사를 통하여 인류 가운데 계속된다. 미사는 단순히 과거를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골고타에서 완성하시어 세상을 구원하신 저 숭고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그리고 진정으로 현존하게 하는 행위이다. 십자가상 제사와 미사는 전능하신 분의 손길이 시간과 장소를 달리 정해놓으셨을 뿐, 완전히 동일한 단 하나의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십자가상 제사가 미사보다 더 가치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무대만 다를 뿐, 희생 제사를 거행하는 사제도 동일하고 희생 제물도 동일하다. 미사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 바치셨던 모든 것과 인류를 위하여 얻어주신 모든 것이 들어있고,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이 바치는 제물은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위대한 제물과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나누어 받기를 원하는 레지오 단원은 미사에 의지하여야 한다. 저마다 형편과 사정이 매우 다르기에, 레지오는 미사 참여와 관련한 어떤 의무도 단원들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원들과 단원들이 수행하는 활동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자주, 될 수 있는 대로 날마다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하기를 단원 각자에게 촉구하고 간청한다.

레지오 단원들이 행동을 할 때에는 성모님과 일치하여 행동한다. 이 원칙은 특히 성찬 거행에 참여할 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사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라는 두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은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기에 단 하나의 예배 행위를 이룬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56항).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느님 말씀의 식탁에서 가르침을 얻고 그리스도 성체의 식탁에서 기운을 차리기 위하여, 이 두 식탁이 함께 마련되는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여야 한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48항 및 51항)

“미사 성제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단지 하나의 상징적인 형태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골고타의 희생 제사는 시간을 초월하는 위대한 하나의 실재로서 즉시 현재로 들어선다. 시간과 공간은 폐지된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기에 현존하신다. 회중 전체가 주님의 거룩하신 희생의 의지와 일치하여 자기 앞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살아 있는 제물로 봉헌한다. 이처럼 거룩한 미사는 무시무시한 현실을 체험하는 자리, 골고타의 실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된다. 그리고 슬픔과 통한, 사랑과 헌신, 영웅적 행위와 희생정신이 물줄기가 되어 제대에서 흘러나와 기도 중에 있는 회중을 통과하며 흘러간다.”(칼 아담 Karl Adam : 가톨릭 신앙의 정신)

## 2. 말씀 전례

미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거행하는 자리이며, 그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자라난 믿음이다. 여기서 『미사 경본 총지침』 제29항의 다음의 말을 상기해보자. “교회 안에서 성경이 봉독될 때에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이는 전례의 중요한 요소인 하느님 말씀을 봉독할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강론 역시 매우 중요하다. 강론은 주일이나 축일에는 미사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그 밖의 날에도 강론이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강론을 하는 자는 미사에 참례하고 있는 신자들의 신심을 건설하기 위하여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성경 본문을 설명해 준다.

우리가 말씀 거행에 참여할 때, 성모님은 우리의 본보기이시다. 성모님은 ‘신앙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으신 깨어있는 동정녀’로서, 그녀의 ‘신앙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전제 조건이요 길’이었기 때문이다(교황 바오로 6세의 권고 『마리아 공경』 17항).

## 3. 성모님과 일치하여 바치는 성찬 전례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서는 성모님께 엄숙히 동의를 구하시어 흔쾌히 승낙 받으신 후에야 구속 사업에 착수하셨다. 골고타에서도 성모님이 곁에 계시면서 동의하셨기에

구속 사업을 완성하실 수 있었다. “마리아와 그리스도 사이에 고통과 의지의 공유가 있기에 마리아는 지극히 합당하게 멸망한 세상의 복구자가 되고 따라서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과 피로 얻어 주신 온갖 선물의 분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교황 비오 10세의 회칙 『Ad Diem Illum』 12항). 골고타에서 성모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계셨고 그곳에서 온 인류를 대표하셨다. 그리고 새로이 미사가 봉헌될 때마다 똑같은 조건에서 구세주의 봉헌이 성취된다. 성모님은 전에 십자가 곁에 서 계셨던 것처럼 제대 곁에 서 계신다. 그곳에서 언제나처럼, 태초부터 예언된 여인으로서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시면서 예수님께 협력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올바로 미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성모님에게 사랑을 담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골고타에는 성모님과 더불어 로마 군단을 대표하는 이들인 백인대장과 그의 병사들도 있었다. 그들은 희생 제물이신 주님을 봉헌하는 일에 슬픔에 잠겨 참여하고 있었으나 자신들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1코린 2,8) 사실은 정녕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들 위에 은총이 쏟아져 내린 것이다! 이 일에 대하여 베르나르도 성인(St. Bernard)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라, 신앙의 눈이 얼마나 깊고 날카롭게 꿰뚫어 보는지! 골고타에서 그 신앙의 눈은 백인대장으로 하여금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꺼져 가는 숨결 속에서마저 그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옆이심을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로마 군사들은 자신들의 손에 희생된 처참한 시신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마태 27,54)하고 선포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폭풍이 휘몰아치듯 로마 군사들이 갑작스럽게 회두한 것은 성모님의 기도가 순식간에 이루어낸 예상치 못한 결실이었다. 그들은 인류의 어머니가 골고타에서 최초로 맞아들인 뜻밖의 자녀들이었다. 하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레지오’라는 이름이 어머니의 마음에 들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만일 그렇다면, 성모님의 소유이자 성모님의 지향에 결합되어 있고 성모님의 협력을 돕는 레지오 단원들이 날마다 미사에 나올 때, 성모님께서서는 단원들을 당신께 모아들이시고 신앙의 “날카로운 눈”과 넘쳐흐르는 당신 마음을 주시어, 미사에서 계속되고 있는 저 골고타의 지고한 희생 제사에 가장 내밀한 방식으로(놀라운 은혜를 얻으면서) 참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미사는 하느님의 아드님의 희생 제사임과 동시에 레지오 단원들 자신들의 희생 제사이다. 따라서 레지오 단원들이 하느님의 아드님이 거양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자신들을 그분과 일치시킴으로써 단 하나의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단원들은 그분의 흡송하올 몸을 받아 모셔야 한다. 이 거룩한 희생 제사의 열매를 완전히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제물이 되신 그분의 거룩한 몸을 사제와 함께 나누는 일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성모님은 사랑하는 당신 아드님께서 십자가의 제대 위에서 인류 구원 사업을 완성하고 계실 때 아드님 곁에 서서 함께 수난을 겪으시고 함께 구속 사업을 수행하고 계셨다.”(교황 비오 11세) 레지오 단원들은 이처럼 성모님이 미사라는 거룩한 신비 안에서 수행하시는 본질적인 역할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레지오 단원이 미사를 마치고 제대를 떠난 후, 성모님은 단원들과 함께 하시고 은총을 나누어 주는 당신 사업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단원들이 만나서 활동하는 각각의 모든 영혼 위에 무한한 구원의 보물이 아낌없이 쏟아지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정 마리아에게서 참사람으로 나신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성찬의 식탁 - 구원 신비를 기념하는 전례 거행 - 에서 마리아의 모성을 특별히 언급하고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감각은 복되신 동정녀에 대한 신심과 성찬례 사이의 깊은 유대를 언제나 올바르게 이해해 왔습니다. 이것은 서방과 동방의 전례에서, 수도 단체들의 전통에서, 젊은이들의 영성 운동을 포함한 현대의 다양한 영성 운동에서 그리고 마리아 순례지의 사목 활동 등에서 역력히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신자들을 성찬으로 이끄십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44항)

#### 4. 성체 성사는 우리의 보화

성체성사는 은총의 중심이며 원천이다. 그러므로 성체성사는 레지오 조직의 참다운 근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열성적으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레지오 활동의 주목적이 모든 이의 마음 안에 성체성사가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는 일임을 잊어버린다면, 그 활동은 아무 가치 없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성체성사가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달성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당신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시어 그들이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자기 전달은 특히 지성한 성체성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51)

성체성사는 무한한 선(善)이다. 예수님께서 나자렛 성가정이나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사 안에 몸소 현존해 계시기 때문이다. 지성한 성체성사는 단순히 예수님을 상징하거나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사하시는 데 쓰시는 도구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기르셨던 성모님은 “흠숭하올 성체성사의 주인 안에서 당신 태중의 복되신 아드님을 다시 뵈옵고, 당신의 삶을 성사적으로 현존해 계시는 아드님과 일치시키시면서 베들레헴과 나자렛에서의 행복했던 시절을 새롭게 하셨다.”(성 베드로 율리아노 에이마르 St. Peter Julian Eymard)

예수님을 신의 계시를 받은 자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존재로만 여기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존경을 드리고 그분을 본받으려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이 예수님을 더 훌륭한 존재로 생각하였다면 더 많은 것을 예수님께 돌려드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을 지닌 우리들은 무엇을 해 드려야 하는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다른 이들이 감탄하며 바라보는 바로 그 예수님을 가톨릭 신자들은 성체성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자유로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으며 자신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그분을 모실 수도 있고 또 모셔야 하기도 한다. 심지어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처럼 훌륭한 유산을 소홀히 한다는 것과, 성체성사를 믿으면서도 죄와 무분별한 행동으로 자기 영혼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생명소(生命素)를 박탈당하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 생명소는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첫 순간부터 신앙인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계셨던 생명소다.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빵집’이라는 의미)에서 갓난아기로 계실 때조차 ‘하느님의 밀’을 만들어 낼 밀짚 가운데 누워계셨다. 이 ‘하느님의 밀’은 장차 ‘하늘나라의 빵’이 되어 사람들을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님의 신비체를 이루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성모님은 이 신비체의 어머니이다. 그 옛날 당신의 아기 그리스도의 필요를 돌보는 일에 여념이 없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이 바로 그 어머니로 계시는 이 신비체에 음식을 먹이기를 갈망하신다. 그런데 하늘의 빵으로 양육되어야 함에도 극소수만 그 빵으로 양육되고 있고, 많은 이들은 아예 그 빵을 받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의 신비체에서 당신의 아이가 배고파하며 심지어 굶어죽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모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이지겠는가! 영혼을 돌보시는 마리아의 모성에 결합되기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분과의 일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겪고 있는 굶주림을 덜어주도록 노력하도록 하자. 레지오 단원들은 복된 성체성사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일깨우고 성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와 무관심을 없애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지성한 성체를 영하도록 권면하여 성공할 때마다 이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득이 된다. 성체는 개별 영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를 양육하고, 이 신비

체의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갈 수 있도록’(루카 2,52) 해준다.

“구원 사업에 있어 어머니와 아드님의 이러한 일치는 해골산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그 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흠 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셨고’(히브 9,14),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서서(요한 19,25 참조) ‘당신 외아드님과 함께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드님의 제사를 모성애로 함께 바치셨으며, 당신이 낳으신 희생자의 봉헌을 사랑으로 동의하셨고’ 당신 자신까지도 영원하신 아버지께 봉헌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구세주께서는 십자가의 제사를 세세대대로 영속시키고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이를 당신 신부인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특히 매주일마다 신자들을 모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파스카를 거행합니다. 교회는 이 파스카를 하늘의 성인들과 특히 복되신 동정녀와의 통공 안에서 거행하면서, 그분들의 불타는 사랑과 굳건한 신앙을 본받고 있습니다.”(교황 바오로 6세의 권고 『마리아 공경』 20항)

## 제9장 레지오 단원과 그리스도의 신비체

### 1. 그리스도의 신비체 교리는 레지오 봉사의 기초이다

레지오 최초로 가졌던 바로 그 회합에서 단원들은 자신들이 시작한 봉사가 초자연적인 특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단원들이 사람들에게 다가설 때에는 마땅히 친절함이 넘쳐야 하겠지만, 그 동기가 순전히 자연적인 동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모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뵈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것, 가장 나약하고 가장 미천한 사람들에게까지 행하는 것이,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우리 주님께 해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했다.

첫 회합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레지오는 이 점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레지오는 이 초자연적인 동기가 레지오 단원들이 행하는 섬김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레지오의 규율과 내부 조화가 특히 이 원리에 달려 있다는 점을 레지오 단원들이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단원들은 자기 간부들에게서 그리고 단원들 서로에게서 그리스도를 알아 뵈고 존경해야 한다. 이 혁신적인 진리가 단원들 마음속에 각인되어 남아있도록, 레지오는 이를 상훈(常訓)에 넣어 매월 첫 주 회합에서 낭독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상훈은 레지오의 또 다른 원리도 강조한다. 활동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성모님과 일치하겠다는 정신으로 행하여, 실제로 단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활동을 수행하시는 분은 성모님이 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레지오 조직의 기초가 되는 이 원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관한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며, 이 가르침은 바오로 성인의 편지들의 중심 주제를 이룬다. 바오로 성인이 이 가르침을 중심 주제로 삼아 편지를 썼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의 회심을 이끌어냈던 주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선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였다. 그리스도인들의 열렬한 박해자였던 사울은 땅에 엎어진 채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다. 그때 그는 저항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하고 묻자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사도 9,4-5).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오로 사도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고 그 결과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던 진리를 바오로 사도가 늘 말하고 글로 써야 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바오로 성인은 그리스도와 영세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를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머리와 그 밖의 지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와 같은 것이라고 묘사한다. 각 지체는

저마다 독특한 목적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어떤 지체는 더 고귀하고 어떤 지체는 덜 고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체는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동일한 생명이 그들 모두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한 지체가 기능이 정지되면 모든 지체가 손해를 보고, 마찬가지로 한 지체가 뛰어나면 모든 지체가 이득을 얻는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에페 1,22-23 참조). 그리스도는 이 몸의 머리이시며 우두머리시요, 없어서는 안 될 완전무결한 부분으로서, 몸을 이루는 다른 모든 지체들은 여기에서 힘을 얻고 생명까지도 얻는다. 세례성사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유대로 그리스도께 결합된다. 그러므로 신비롭다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깨달아라. 성경의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이다(에페 5,30). 지체들과 머리, 그리고 지체와 지체 사이에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신성한 의무가 있다(1요한 4,15-21 참조). 몸이라는 표상은 이 신성한 의무를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며, 깨달은 것만으로도 절반은 이 의무를 수행한 셈이다.

교회는 이 진리가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라고 말해왔다. 실제로 인간에게 전달된 모든 초자연적인 생명과 모든 은총은 구속이 가져다준 열매이기 때문이다. 구속 그 자체의 토대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단 하나의 신비로운 몸을 구성함으로써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죄와 그분이 겪으신 수난의 무한한 공로가 그리스도의 지체들 즉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속한다는 사실에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당신 자신이 범하지도 않은 죄를 기워 갚으신 이유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에페 5,23) 신비체의 활동은 그리스도 자신의 활동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합체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고통당하고 죽으며,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세례성사만이 거룩하게 한다. 세례성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 지체들인 영혼들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연결부를 그리스도와 영혼들 사이에 설치해주기 때문이다. 그 밖의 성사들, 특히 지성한 성체성사는 신비로운 몸과 그 머리 사이의 일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존재한다. 게다가 신비체와 머리가 이루는 이 일치는 믿음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교회 내 통치의 유대와 상호 섬김을 통해, 노동과 고통을 마땅히 감수함으로써,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그 깊이를 더해 간다. 특히 이 모든 일들을 마리아와 의식적으로 협력하면서 행한다면 효과적인 것이 될 것이다.

마리아는 머리와 지체들 모두의 어머니시라는 지위로 말미암아 탁월한 일치의 유대를 형성해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페 5,30 참조)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온전히 동등한 방식으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녀들이다. 마리아가 존재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전(全)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는 일이

다. 여기서 ‘전 그리스도’란 서로 알맞게 연결되어 있는 완전한 지체들을 모두 갖추 고서(에페 4,15-16 참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신비체를 가리킨다. 마리아는 이 일을 신비체의 생명이시며 영혼이신 성령에 협력하시고 성령 의 권능에 의하여 성취하신다. 바로 마리아의 품 안에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그분의 보살핌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에페 4,13)

“성모님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그 어떤 역할과도 구분되는 주요한 역할을 맡아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지체들 가운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다음가는 으뜸가는 당신만의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시며,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하느님의 유기체적 조직 안에서 몸 전체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관된 임무를 수행하신다. 성모님은 바로 그 심장이시다. …… 베르나르도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 신비체 안에서 성모님이 수행하시 는 역할을 더 일반적으로는 목에 비유하곤 한다. 목은 머리를 몸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비유는 신비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 지체들 사이에서 성모님이 수행하시는 보편적인 중개 역할을 상당히 잘 강조한다. 그러나 목의 비유는 초자연적 생명을 운용하는 일에서 성모님이 행사하시는 지대한 영향력과 성모님이 하느님께 버금가는 힘을 지니고 계신다는 사상을 심장만큼 효과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한다. 목은 연결해주는 고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목은 생명이 존재하게 하고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서 어떤 역할도 담당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심장은 풍 부한 생명을 자신 안에 먼저 받아들인 다음 그 생명을 온몸에 분배해야 하는 생명의 저장소이다.”(뮈라 Mura : 그리스도 신비체)

## 2. 마리아와 그리스도의 신비체

하느님이신 당신 아드님의 실재 몸을 양육하고 보살피고 사랑하시면서 성모님이 수 행하신 다양한 직무는, 가장 고결한 형제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 형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구성하는 각 지체와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성모님의 직무로 남아 있다. 그 때문에 신비체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볼’ 때(1코린 12,25), 마 리아와 무관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혹시 그 지체들이 부주의나 무지로 성모님의 현존을 깨닫지 못할 때조차도, 그저 자신들이 쏟는 수고를 성모님의 수고와 연결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이미 성모님의 활동이고, 성모님은 이 활동을 주님 탄생 예고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아하고 분주하게 수행하신다. 이와 같은 이

유로 레지오 단원들이 신비체의 다른 지체들에게 봉사할 때에는 그들이 성모님을 모시고 가서 성모님이 자신들을 돕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모님이 단원들을 불러 당신이 하시는 일을 돕도록 하시는 것이다. 지체들을 섬기는 일은 성모님의 특별하고 고유한 일이므로, 성모님이 은혜로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그 일에 참여할 수 없다. 자기 이웃에게 봉사하려 하면서도 성모님의 지위와 특권을 좁히려는 이들이 있다면 신비체 교리에서 나오는 논리적인 결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해야 한다. 게다가 이 신비체에 관한 교리는 성경을 받아들인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느님의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교훈이 된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당신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어머니께 순종하셨다는 사실과(루카 2,51 참조) 그리스도의 모범은 그 신비체의 지체들에게 일종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끔 하자. “…… 어머니를 공경하여라.”(탈출 20,12).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자녀로서의 효성을 성모님께 드려야 하며, 모든 세대는 그분을 행복하다 노래할 의무가 있다(루카 1,48 참조).

성모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 어느 누구도 이웃에게 봉사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듯이, 성모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어느 정도라도 따르지 않고서는 이 봉사의 의무를 훌륭하게 이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성모님과 더 일치하면 할수록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1요한 4,19-21 참조)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더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에서 레지오 단원들이 특별히 담당하는 역할은 이웃을 인도하고 위로하며 깨우쳐 주는 일이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교회의 본분과 특권, 교회의 단일성, 권위, 성장, 고통, 기적, 승리, 은총의 전달과 죄의 용서는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살아계시고 교회를 통하여 당신 사명을 지속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에만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안에서 펼쳐졌던 모든 국면들을 재현한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어 신비체가 하는 활동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드신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 현장’을 읽어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불러 모으신 당신 형제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어 신비로이 당신의 몸을 이루셨다. 그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다.’ …… 사람 몸의 지체가 여럿이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하다(1코린 12,12 참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에도 지체들이 서로 다르고 그 직무가 다른 것이다. …… 주님의 영은 극히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며, 여러 가지 형태의 봉사와 직무를 맡도록 사람들

을 초대하십니다.”(20항)

이 신비체의 삶에서 우리 레지오 단원들의 특징이 되어야 할 봉사 형태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우리의 어머니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어머니는 다름 아닌 신비체의 심장으로 묘사되어 왔다. 성모님이 맡으신 역할은 심장이 인체에서 하는 역할처럼, 신비체의 정맥과 동맥을 통하여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내보내시어 생명을 전달하고 동시에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는 특별히 사랑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이 성모님과 일치하여 자신들의 사도직을 수행할 때에는, 성모님께서 신비체의 심장의 자격으로 수행하시는 중대한 역할에서 성모님과 하나가 되라는 요청을 받는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1코린 12.21) 레지오 단원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자신들이 사도직 활동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야 한다. 레지오 단원들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분께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참된 의미에서 레지오 단원에게 의지하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까지도 “영혼을 구하고 거룩하게 하는 내 일을 할 때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레지오 단원에게 말씀하셔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다’(골로 1.24)는 바오로 성인의 말은 바로 이처럼 머리는 몸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바오로 사도가 사용한 이 인상적인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면에서 불완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는 자신의 구원과 다른 지체들의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필립 2.12 참조) 원리를 강조하는 것일 뿐이다. 이 원리를 통해 신비체 안에서 레지오 단원들이 부름 받고 있는 숭고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자. 그 소명은 우리 주님의 사명에 모자란 부분을 채워드리는 일이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과 희망을, 고통 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레지오 단원들을 필요로 하시다니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레지오 단원들의 본문과 의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어머니께 드리셨고 신비체가 재현하여야 할 저 비할 바 없는 사랑과 순종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본받는,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

“바오로 성인이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자신의 육신으로 채우고 있다고 단언한 것처럼, 우리도 진실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그분과 은총으로 일치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평화로이 지내시는 동

안 몸소 하셨던 행위를 지속하고 완성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바치신 기도를 이어 바치는 기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활동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삶과 말씀을 통하여 미처 다 하시지 못한 것을 완성하는 활동이 된다. 우리 모두는 이 지상에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들’이 되어, 하느님의 거룩한 처분에 맡겨드렸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실천하고 감내하여 그리스도의 생애와 활동을 지속해야만 한다.”(성 요한 유드 St. John Eudes : 예수님의 왕국)

### 3. 신비체 안에서 겪는 고통

레지오 단원들은 사명을 수행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고통 받는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접촉한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세상이 ‘고통’의 문제라고 칭하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알고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살다보면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다. 거의 모든 사람이 고통에 직면한다. 고통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다가도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저 감내할 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구원 계획은 실현되지 못한다. 옷감을 짤 때 씨줄이 날줄을 가로질러 가면서 날줄을 보완하는 것처럼, 구원 계획에 따르면, 열매를 맺는 모든 삶에서는 고통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통은 인생의 여정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휘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와 같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필리 1,29)을 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어 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2티모 2,11-12)이기 때문이다.

바로 사도가 말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은,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막 당신의 사명을 그 위에서 마치시어 온통 피로 넘쳐나고 있는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다. 그 십자가 아래에는 너무도 상심하여 더 이상 삶을 지탱하기도 힘들 것처럼 보이는 한 여인이 서 계신다. 그 여인은 구원하는 자와 구원을 받은 자 양편 모두의 어머니이다. 십자가 아래에 짙은 값으로 흠뻑 젖어 있지만 세상을 구원한 그 피는 당초 이 어머니의 혈관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이제부터는 그 값진 피가 신비체를 관통하여 흐르면서 모든 빈자리를 생명으로 채워 넣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총을 누리려면 성혈이 흐름으로써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전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한다. 고귀한 성혈이 영혼 안에 흘러 들어오면 영혼은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온전한 그리스도로서, 환희와 영광의 그리스도인 베들레헴

과 타보르 산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고통과 희생의 그리스도 즉 골고타의 그리스도 이시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어느 한 모습만 취사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한다. 성모님은 주님 탄생 예고를 받던 환희에 찬 순간조차도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계셨다. 성모님은 당신이 기쁨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부르심만이 아니라 슬픔의 여인이 되리라는 부르심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러나 성모님은 늘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전적으로 맡겨 드리고 계셨기에 하느님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다. 성모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아드님의 생애와 더불어 그 생애가 의미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셨다. 그분은 아드님과 함께 천상의 기쁨을 맛보아야 하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드님과 함께 고통도 기꺼이 감내하셨다. 그 순간 성모님의 성심과 아드님의 성심은 하나가 될 만큼 아주 밀접한 일치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두 심장은 신비체 안에서 신비체를 위하여 함께 뛰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성모님은 우리 주님의 지극히 고귀한 성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영적인 맥관(脈管)인 은총의 중재자가 되셨다. 성모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성모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 하느님께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성심과 얼마나 밀접하게 일치해 있는지에 늘 달려 있을 것이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고귀한 성혈을 바로 그 성심에서 깊이 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심과 성혈과의 일치를 그리스도의 생애의 어느 한 측면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생애에서 찾아야 한다. '영광의 왕'과 '비탄의 인간' 모두 단 한 분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광의 왕은 환영하면서도 비탄의 인간을 배척한다는 것은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일이다. 비탄의 인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명에서 아무런 역할도 맡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질 영광스러운 사명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함께 나눌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고통은 언제나 하나의 은총이다. 고통은 치유를 허락하지 않는 때라도 힘을 부여해 준다. 고통은 단순히 죄에 대한 처벌이 결코 아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St. Augustine)은 “인간이 고통을 겪는 것은 형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라. 고통은 그 성격상 치료적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주님께서 무죄하고 거룩한 이들을 당신 자신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완전하게 닮게 하시려고, 당신의 고난을 마치 측정할 수 없는 특전처럼 그들의 몸 안에 흘러넘치도록 쏟아 주신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을 교환하고 섞는 일은 모든 고행과 보속의 토대가 된다.

고통을 단지 인간의 몸을 관통하여 순환하고 있는 피에 비유해 봄으로써, 고통이 맡고 있는 역할과 그 목적을 더욱 생생하게 알게 된다. 손을 생각해 보라. 손목에서 뛰고 있는 맥박은 심장의 고통이다. 심장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피는 손을 관통하여 흐

른다. 손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으로서 몸과 하나이다. 손이 차가워지면 혈관은 수축되고 피가 순환하는 데에 지장이 발생한다. 손이 더 차가워지면 피의 흐름은 줄어든다. 피의 흐름이 멈출 정도로 손이 차가워지면 동상에 걸리고 세포 조직은 죽기 시작하며 손은 생기를 잃어 쓸 수 없게 된다. 그런 손은 죽은 손과 같아서 그 상태로 내버려두면 괴저(壞疽)가 발생한다. 차가움이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단계는 신비체의 지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신앙 상태를 잘 보여 준다. 신비체의 지체들은 그 몸을 관통하여 흐르는 고귀한 성혈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러, 괴저에 걸려 잘라내야 하는 지체처럼 죽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사지가 얼어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나 알고 있다. 얼어붙은 사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다시 순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수축된 정맥과 동맥에 피를 밀어 넣는 일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일종의 기쁨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가톨릭 신자 대부분은 실제로는 동상에 걸리지 않은 지체와 같다. 설령 자기만족에서 신앙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때조차도 그들은 자신들이 차갑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바라시는 정도의 성혈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억지로라도 당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셔야 한다. 그분의 피는 그 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고통을 일으키며 흐른다. 그리고 이 고통은 삶을 슬프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한다면, 고통으로 인한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고통을 느낀다는 것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겪어야 할 고통을 모두 겪으셨다. 당신이 받아야 할 고통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다 받으셨다. 그렇다면 주님의 고통이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 머리로서의 고통은 끝났다. 그러나 몸이 겪어야 할 수난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몸 안에서 여전히 고통 받고 계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속죄 행위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속죄 행위에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들의 몸이며, 하나는 다른 하나의 몸이기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겪으시는 모든 고통을 머리와 함께 지체들도 겪어야만 하기 때문이다.”(성 아우구스티노 St. Augustine)

## 제10장 레지오 사도직

### 1. 레지오 사도직의 존엄성

레지오 마리아가 단원들에게 요구하는 사도직이 얼마나 존엄하고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지를 표현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권위 있는 선언보다 더 힘 있는 말씀은 없다. “평신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자신의 결합에서 사도직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받는다. 세례성사로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결합되고 견진성사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튼튼해진 평신도들은 바로 주님께 사도직을 받았다. 평신도들은 모든 활동을 통하여 영적 제물을 봉헌하며 세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임금의 사제로, 거룩한 민족으로(1베드 2,4-10 참조) 축성되었다. 모든 사도직의 생명인 사랑은 성사 특히 성체성사로 전달되고 자라난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3항)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평신도들은 교회 생활의 일선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인간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더욱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교회란 모든 사람의 으뜸인 교황의 지도 아래 그리고 교황과 일치하는 주교들의 지도 아래 있는 지상의 신자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9항)

“마리아는 인류에게 일종의 도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다. 마리아의 영향력을 자연 질서 안에서 물체와 그 구성 부분들을 함께 묶어주는 인력, 친화력, 응집력 같은 물리적 힘에 비유해 봄으로써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다. …… 우리는 마리아가 사회생활과 그 참된 문명을 이루는 모든 위대한 운동에 참여하셨음을 우리가 증명하였다고 믿는다.”(페치탈로 Petitalot)

### 2. 사도직을 수행하는 평신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평신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명제는, 평신도 신분에 속해 있

으면서도 사제와 같은 안목을 갖추고 통제된 친밀함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접촉점이 되어주면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톨릭 공동체는 건강하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다. 가톨릭 공동체는 이처럼 사제와 사람들 사이의 일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안전할 수 있다.

그런데 사도직의 근본정신은 교회의 복지와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은 참여 의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사도직 단체는 사도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거푸집과 같다.

사도직이 지녀야 할 이러한 자질들을 꾸준히 길러 놓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책임감이 전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다음 세대에 가서는 분명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미성숙한 가톨릭 정신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평온하다는 것 말고는 교회의 안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것처럼 무기력한 양 떼는 자기 목자들을 절멸시킬 정도까지 우르르 몰려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대 위로 등장한 첫 번째 사나운 이리 떼에게 잡혀 먹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 뉴만 추기경(Cardinal Newman)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가톨릭 정신의 잣대는 평신도였다.”는 점을 일종의 원리처럼 말하고 있다.

“레지오 마리아의 위대한 역할은 평신도 성소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위험스럽게도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를 성직자와 수도자들과 동일시해버릴 수 있다. 물론 하느님께서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 우리 평신도들 역시 ‘성소’라는 이름으로 배타적으로 일컫는 것을 주셨다. 우리 평신도들은 무의식중에 스스로를 최소한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익명의 군중으로 간주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신다는 사실(요한 10,3)과, 우리처럼 골고타의 현장에 함께 하지 않았던 바오로 성인이 고백한 것처럼(갈라 2,20 참조),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셨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님처럼 동네 목수이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소박한 주부일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 각자는 하나의 소명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 자신만의 사랑과 봉사를 하느님께 드리고 어떤 구체적인 일을 행하라고 하느님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 구체적인 일이란 설령 다른 이들이 더 잘할 수 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을 말한다. 나 말고는 어느 누구도 하느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없고 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레지오가 촉진하는 개인적 종교 감각이다. 레지오 단원은 수동적이거나 피상적인 역할에 더 이상 만족해하지 않는다. 각자는 하느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되어야

하고 무엇인가 행하여야 한다. 종교가 인생에서 아주 평범한 일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며, 개인의 삶에 영감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각자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하고 제2의 그리스도가 되고 가장 작은 형제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열망, 즉 사도적 정신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레지오는 수도회를 갈음하는 평신도 단체로서, 완덕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이상을 평신도들의 생활 속에 옮겨 놓아 오늘날 세속화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넓혀가고 있다.”(몬시뇰 알프레드 오래힐리 Msgr. Alfred O'Rahilly)

### 3. 레지오와 평신도 사도직

다른 여러 원리와 마찬가지로 사도직도 그 자체로서는 다소 차갑고 추상적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수 있다. 그 결과 평신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사명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거나,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응답할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생각할 위험성마저 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펴고 있는 싸움에서 평신도들이 반드시 맡아야 할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하려는 노력까지도 포기해버리는 비참한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으로서 아프리카 선교 지역에 사도좌 사절로 파견되었다가 그 후 중국에서 교황 대사를 지낸 리베리 추기경(Cardinal Riberi)의 말을 들어 보자.

“레지오 마리아는 참으로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형태의 모습을 갖춘 사도직 활동이다. 레지오는 활기에 찬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교황 비오 11세가 정하신 방법, 즉 하느님의 동정 성모께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레지오는 자질을 강조하면서 이를 단원들의 토대와 심지어 수적인 힘의 비결로 삼는다. 레지오는 많은 기도와 자기희생, 정밀한 조직 체계, 그리고 사제와의 온전한 협력을 통하여 보호받는다. 레지오 마리아야말로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 가운데 하나이다.”

레지오는 합법적 장상에게 드려야 할 마땅한 존경과 순명을 사제에게 드리지만, 단순히 그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 레지오 사도직은 은총의 주된 통로가 미사와 성사이며 사제는 미사와 성사의 필수적인 교역자라는 사실을 토대로 삼아 세워졌다. 이와 같은 사도직을 수행하기에, 레지오 사도직의 모든 노력과 활동 방법은 병들고 굶주린 군중에게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신 생명의 양식을 가져다준다는 중대한 목적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레지오 활동의 첫 번째 원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제

를 모셔다 드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 물론 사제를 직접 모셔가는 일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제가 미치는 영향력과 사제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어디든 사제를 모셔갈 수 있다.

이것이 레지오 사도직의 본질적인 사상이다. 레지오 사도직은 수많은 평신도 단원들에 의하여 수행되겠지만, 단원들은 사제들과 온전히 일치하고 사제들의 지휘 아래에서 사제들과 전적으로 똑같은 관심을 지니고 활동할 것이다. 레지오는 사제들의 수고를 보충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 사제들이 차지하는 자리를 넓힘으로써, 사람들이 사제들을 맞아들일 때 마침내 사제들을 보내신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온갖 열성을 다 바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요한 13,20)

#### 4. 사제와 레지오

일손을 돕고자 모여든 열심한 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제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 주신 본모기를 따른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회개시키려고 준비하실 때 당신이 뽑은 사람들을 주위에 불러 모아 가르치시고 당신의 정신을 넣어 주셨다.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그 가르침을 배운 대로 실천에 옮겨, 그들을 도와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나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삐짜르도 추기경(Cardinal Pizzardo)이 잘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먼저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로마가 어머니 교회로 자리 잡도록 씨를 뿌린 사람들은 아마도 오순절에 사도들의 강론을 들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사도 2,10)이었을 것이다. 그 뒤 베드로와 바오로 두 분 성인이 로마에 가서 정식으로 교회를 세우게 된다. “만일 열두 사도들이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간직하고 있소. 이 보화를 두루 전파하는 일을 도와 주시오.’라고 말하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더라면, 사도들만으로는 이 드넓은 세상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교황 비오 11세)

온 세상을 회개시키는 일과 관련하여 주님과 사도들이 보여 주신 모범은 모든 사제들이 그들의 작은 세계, 이를테면 본당, 지구 또는 특수 사목 활동과의 관계에서 본

받아야 할 본보기가 되도록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교황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인용해보자.

“어느 날 추기경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비오 10세 교황은 ‘지금 이 사회를 구원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추기경 한 명이 ‘가톨릭 학교를 세우는 일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다른 추기경이 ‘아닙니다. 성당을 배로 늘리는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 추기경이 ‘그것도 아닙니다. 성직자를 더 모집하는 일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교황은 ‘아니오, 그렇지 않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각 본당마다 덕망 있고 명석하고 결단력과 참다운 사도직 정신을 지닌 일단의 평신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말년을 보내고 있던 이 교황은, 말과 행동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모범을 통하여 사도직에 헌신하는 가톨릭 신자들을 성직자들이 열성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라 믿었던 것이다. 그는 교황이 되기 전에 여러 교구에서 교역을 수행할 당시, 본당 신자들의 수보다는 사도직을 발산할 능력이 있는 신자들의 명단을 더 중요시하였다. 그는 어느 계층에서든지 이처럼 평신도들을 선발하여 모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사제들을 평가할 때에도 그들이 열성과 능력을 다하여 평신도 선발과 양성에서 얻어낸 성과를 기준으로 삼았다.”(쇼타르 Chautard : 사도직의 정신, 4, 1.f.)

“사목자의 임무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그 본래의 임무이다. 그리고 공동체 정신은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보편 교회도 포함하도록 올바르게 계발되어야 한다. 지역 공동체는 오로지 자기 신자들만을 돌보지 말고, 선교 열정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을 닦아야 한다. 특별히 예비 신자들과 새 신자들을 돌보며 그들이 단계적으로 그리스도인 생활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6항)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신비체를 이 세상에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셨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사업은 골고타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주님의 죽음은 인류에게 구원을 얻어 줄 수 있는 가치를 지녔지만, 막상 십자가로부터 생명을 가져다줄 교회가 없었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을 사제와 일치시키신다. 사제는 영혼들에게 초자연적 생명의 피를 중간에서 퍼올려 주는 보조 심장과 같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에서 영적인 전송 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만일 사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송 시스템이 멈추게 되어, 사제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려는 생명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사제와 신자들과의 관계는 합당한 한계 내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그리스도가 연장된 한 부분이지 결코 단순한 고용인이나 추종자나 지지자나 후원자가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활동을 거들어 드린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해야 한다. 사제들은 가능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신비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셨으므로 사제도 이와 똑같이 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제 역시 자신을 위해 지체들을 모아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여야 한다. 사제 자신이 모아서 사제 자신과 일치체를 이루는 살아 있는 지체들이 없다면, 그의 활동은 보잘 것 없는 차원으로 축소될 것이다. 그는 고립될 것이며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1코린 12,21)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신비체를 영혼들에게 이르는 당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원리로 삼으셨다면, 새로운 그리스도인 사제를 통하여서도 이와 동일한 질서가 정확히 작동한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4,12 참조)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성장’이 충만히 이루어질 때까지 말은바 열성을 쏟지 않는 사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혼들 안에 들어가 그 영혼들로부터 풍요롭게 발산되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사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만다. 머리가 하는 일은 몸에 생명을 주는 일이지만 머리는 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으므로, 결국 머리의 생명은 몸의 생명이 커지면 더불어 커지고, 몸이 시들면 더불어 쇠퇴하기 때문이다. 사제 직분의 이런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제는 평생을 가더라도 자신의 능력의 일부밖에는 쓰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참된 사명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땅 끝까지 헤쳐 나가는 일이 아니던가.”(뤼플리 신부 Canon F. J. Ripley)

## 5. 본당에서의 레지오

“현재의 상황에서 평신도들은 본당에서 교회적 친교의 성장을 위하여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또 그러기에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한 냉담자들과 비신자들을 향한 선교 열정을 다시 일깨우는 데에, 평신도들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합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27항) 레지오 마리아를 설립함으로써 진정한 공동체 정신의 성장이 크게 촉진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레지오를 통하여 평신도들은

본당에서 사제와 밀접히 일치하여 활동하는 것과 사목적 책임에 참여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정기적인 주 회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본당 활동을 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점이 있다. 그러나 더 높이 고려해야 할 점은, 본당 활동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레지오에 가입함으로써 영적인 양성을 받게 되어 본당이 일종의 성찬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레지오라는 체계적인 조직을 통하여 그러한 성찬의 공동체를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본당 내 모든 신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본당에서 레지오 사도직을 수행하는 몇 가지 방법은 제37장 [활동의 예와 방법]에 설명되어 있다.

“사제들은 평신도 사도직을 자신들이 수행하는 사목 활동의 확고부동한 부분으로 여겨야 하며, 신자들은 이를 그리스도인 생활의 의무로 여겨야 한다.”(교황 비오 11세)

## 6. 높은 이상과 진취적 행동의 견인차인 레지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진리의 수호자인 교회가 틀에 박힌 신중한 모습만 보인다면, 진리를 위태로운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 너그러운 심성을 지닌 젊은이들은 이상적인 행동을 갈망한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순전히 세속적이거나 심지어 반종교적인 조직을 바라보며 이를 찾는 습성에 물들어 버린다면, 무서운 해악을 입게 되며 그 값은 다음 세대가 치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레지오는, ‘이상’과 ‘행동’이라는 두 낱말을 교회를 위하여 취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보완하는 것으로 삼는 것처럼, 자신이 행하는 사업과 노력과 희생 가운데 하나를 계획으로 수립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다.

역사학자 렉키(Lecky)의 따르자면, 세상은 그 자신만의 여러 이상(理想)에 의하여 지배받는다. 실제로 그러하다면, 더 높은 이상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하여 인류의 삶을 향상시킨다. 이상은 실천적인 그 무엇이고, 또 사람들을 이끌 만큼 충분히 드러나는 것임을 마땅히 이해할 수 있다. 레지오 마리아가 주창하고 이상이 이 두 가지 요건 모두에 부합한다는 사실에는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레지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레지오 단원들과 그 자녀들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사제성소와 수도성소를 받아 레지오의 활동을 영예롭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혹자는 이기주의로 가득 찬 요즘 세상에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반대 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옳지 않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활동에 부름 받고 응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내 시

들해져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큰일을 하도록 부름 받고 이에 응답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낼 것이고, 그 정신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처럼 레지오의 쁘레시디움은 사제를 도와 사제의 사목에 위탁된 이들을 복음화하는 임무에 평신도들의 협력을 점진적으로 얻어내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회합에 참석하여 단원들을 지도하고 격려하며 영성을 높이는 데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레지오 단원들을 통하여 모든 곳에 갈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게 되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고, 사제 자신의 물리적인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진정으로 많은 쁘레시디움을 지도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는 것보다 더 나은 목적에서 열성을 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레지오 단원들 그 자체로는 막대기, 가죽 주머니, 돌팔매 끈, 자갈 따위의 불품없는 도구와 같다. 그러나 성모님은 그들을 하늘의 무기로 만드셨다. 따라서 레지오 단원들로 무장을 한 사제는 또 하나의 다윗이 되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지니고서 죄악과 불신이라는 교만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실함을 입증해주고 여러분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물질적 힘이 아니라 도덕적 힘이다. 위인들만이 큰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보라, 베들레헬 성지는 얼마나 작은 마을이었던가! 그런데도 온 세상을 굴복시켰다. 아티카(Attica)는 얼마나 초라한 고장이었던가! 그런데도 훌륭한 여러 현인들을 배출하였다. 모세가 그러하였고, 엘리야가 그러하였고, 다윗이 그러하였고, 바오로가 그러하였고, 아타나시오가 그러하였고, 레오가 그러하였다. 은총은 언제나 몇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활동한다. 소수의 날카로운 통찰력, 확고부동한 신념, 굽힐 줄 모르는 결의, 순교자의 피, 성인들의 기도, 영웅적인 행위, 말 한마디나 시선 하나에 집중하는 힘,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도구인 것이다. 그러니 작은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큰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뉴만 추기경 Cardinal Newman : 가톨릭 신자의 현 위치)

## 7. 단원 양성을 위한 도제 제도

사도들의 양성을 거론할 때면 일반적으로 주로 강의를 듣고 교재를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레지오는 활동이 따르지 않는 사도 양성이란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실제로, 실질적인 활동을 떠나서 사도직을 논하는 것은 그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그 활동의 어려움을 설명해 주고 또한 높은 정신력과 수행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새로 입단한 단원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실천을 통하여 그 활동이 그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사실상 쉬운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지 않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여 활동을 못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강의 제도는 이론가들 즉 지성을 사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일과 개인 접촉이 뒤따르는 수고스러운 일에 헌신하기를 꺼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평신도 사도직의 모든 일은 이처럼 보잘것없고 수고스러운 일에 달려 있고, 레지오 단원들은 이를 아주 기꺼이 받아들인다.

레지오가 단원 양성에 쓰는 방법은 도제제도(徒弟制度)이다. 이는 어떤 직종이나 기능 분야에서도 외관상으로는 예외 없이 사용되는 이상적인 훈련 방식이라고 레지오는 주장한다. 스승은 지루한 강의 대신 제자의 눈앞에 활동거리를 내놓는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시범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을 활동을 진행해 나가면서 설명해 준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 자신이 그 활동을 시도해 보고 수행하는 중에 교정을 받는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유능한 단원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강의는 활동 자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강의 내용 한마디 한마디는 실제 행동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강의 제도는 빈약한 결실을 낸다. 강의 내용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참석한 학생들마저도 강의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사도직 단체에 입문하는 방법으로 강의 제도를 제안한다면, 가입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가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단순한 사람들은, 비록 종교를 강의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교실 같은 장소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한다. 이 점이 사도직 학습 제도가 널리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레지오는 더 간단하고 더 심리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단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가서 나와 이 일을 해봅시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강의실이 아닌,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도 능히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그 단체에 그저 가입하게 된다. 단체에 가입하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함께 참여하고, 일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들음으로써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후, 그들은 이내 능숙한 솜씨를 발휘하게 된다.

“레지오는 가끔 단원들의 전문 지식 부족의 이유로 또는 단원들에게 오랜 시간 공부에 헌신하도록 강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받곤 한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가) 레지오는 더 유능한 단원들이 공헌할 수 있도록 이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한다. (나) 레지오는 극단적으로 공부를 강조하지는 않으나, 단원들이 각자의 고유한 사도직에 알맞게 쓰이도록 힘쓴다.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표는 레지오가 일반 신자들에게 ‘자, 어서 레지오에 들어와 당신의 재능을 조금만 보여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성모님을 통하여 더욱 크게 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도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을 마련하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레지오가 배우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일 뿐만 아니라, 낮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라는 것이다.”(토마스 오프린 신부 Fr. Thomas P. O’Flynn, C.M. / 레지오 마리아 끈질리움 전 영적 지도자)